《생활이 있는 곳에는 음악이 있고 음악이 있는 곳에는 생활이 있다. 음악은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풍부한 정서, 약동하는 생기, 래일에 대한 희망과 랑만을 안겨주는 인간생활의 가장 친근한 예술이다.》

김 정 일

차 례

조국을 주제로 한 가요

제 목 곡번호

가극노래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중에서

혁명가극 《피바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중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각색한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 중에서

영화 및 TV극 노래

민요

강성대국에서 우리 살리라

작사 신운호
작곡 도영섭

2. 천지개벽 이룬 땅에 열매는 주렁지리라
　발전소들 솟아 올라 우리 락원 더욱 빛나리
　(후렴)

3. 삼천리에 온갖 복이 꽃펴날 그날 앞당겨
　준마 타고 내달리는 우리 마음 새힘 솟네
　(후렴)

고마운 내 조국

2. 해와 별 노래를 부르며 따뜻한 그대 품 알았네
여기서 행복을 찾았고 청춘의 희망도 꽃폈네
아 내 조국 한없이 고마운 내 조국

3. 키워준 그 품이 정다워 내 운명 맡기고사는 곳
이 세상 만리길 간대도 예보다 좋은 곳 있으랴
아 내 조국 한없이 귀중한 내 조국

그대 조국을 사랑한다면

작사 김강호
작곡 전 권
뜨겁고 절절하게 (♩.=82)
1.그 대 진정 ──조국─ 을 ─ 사 랑 ──한 다─
면 철 령의 령길들을 넘 어보시라
넘 ─어보 시─ 라 그러면 말해주리 철령의진달래
이 땅의 새 ─봄이 어떻게왔─던가 장 군 님
헤 ─치신 조국수호의 ─령 길 철령의 령─길을
그 ─ 대여 넘 ─ 어보 시── 라 ─

2. 그대 진정 조국을 사랑한다면
오성산고지우에 올라보시라 올라보시라
그러면 알게 되리 화선의 병사들
그 심장 얼마나 뜨겁게 타는가
장군님 헤치신 병사사랑의 언덕
오성산고지를 그대여 안고사시라

3. 그대 진정 조국을 사랑한다면
장군님 전선길을 잊지 마시라 잊지 마시라
총대로 헤쳐온 피어린 그 길에
참다운 인생의 자욱을 남기시라
장군님 계시여 영원한 승리 떨칠
선군을 선군을 그대여 사랑하시라

귀중한 나의 조국

작사 리정술
작곡 김기홍

좀 느리게 서정적랑만으로

2. 밭갈이노래 부르던 기쁨
내 고향 들판에 어려있고
이 땅을 지켜온 싸움의 나날도
추억속에 빛나네
아 귀중한 나의 조국
한순간도 너를 떠나 살수 없어라

3. 수령님 한평생 바쳐오시고
우리 당 꽃펴준 이 강산
내 사는 조국이 한없이 정다워
어머니라 부르네
아 그 무엇을 아끼랴
둘도 없는 조국을 위해 이 한몸 바치리

나에게 조국을 노래하라면

작사 박경심
작곡 황진영

2. 이 땅우의 찬눈비도 한품에 안아
막아주는 따뜻한 어버이사랑
온 나라 자식들의 밝은 행복도
꽃펴주고 지켜주시네
(후렴)

3.그이 품을 떠나서는 해빛도 없고
우리 요람 우리의 세상도 없네
생명같이 귀중한 그 품을 지켜
결사옹위 성새이루네
(후렴)

나의 조선아

작사 문기창
작곡 박진국

밝고 류창하게 (♩=77)

2. 수령님의 뜻을 안은 붉은기나라
신념으로 승리하는 나의 조선아
(후렴)

3. 사회주의 지키여 강대한 나라
온 세상에 높이 솟은 나의 조선아
(후렴)

나의 평양 정다운 곳이여

작사 김정호
작곡 김기홍

2. 어머니손 잡고 달려갔던
개선의 모란봉 솟아있네
꽃피는 만수대언덕우에
해빛은 찬란히 빛나네
(후렴)

3. 천리마 나래편 하늘가에
내 희망 끝없이 펼쳐가네
한마음 충성을 바쳐가며
여기서 천만년 살리라
(후렴)

아 나의 평양 여기서 천만년 살리라

너를 보며 생각하네

2. 잎이 진 수림속에 앞날을 그려주며
희망의 등대처럼 푸르른 소나무여
드넓은 이 세상이 모두다 우러르는
아 내 조국의 장한 모습 너를 보며 생각하네

3. 태양이 안기여준 푸르른 그 기상을
꿋꿋이 보여주는 억세인 소나무여
우리 당 손길아래 천만년 길이 빛날
아 내 조국의 장한 모습 너를 보며 생각하네

노래하자 나의 조국 비약하는 나라

2. 동해서해 두 바다를 조국의 나래 삼고
세폭의 붉은 기치높이 폭풍을 헤쳐가네
노래하자 나의 조국 비약하는 나의 조국
사람들모두 한마음으로 위훈을 떨치네

3. 공산주의봄언덕우에 수령님 모시리라
하나의 소원 심장에 불타 강산도 끓는다네
노래하자 나의 조국 비약하는 나의 조국
당의 해빛 찬란히 비껴 희망찬 내 나라

내가 자란 품

작사 김경기
작곡 최재선

약간 느리게

2. 밤길을 가도 먼길을 가도 따라서는 어머니였네
어려워도 외로워도 힘을 주는 어머니였네
아 당의 품이 나를 키웠네
참대와 같이 강철과 같이 굳세고 대바르게

3. 어릴 때도 나의 어머니 다 자라도 나의 어머니
검은머리 희여져도 변함없는 나의 어머니
아 당의 품에 자라난 이 몸
순간을 살아도 그대의 전사로 그대만을 따르리

내가 지켜선 조국

작사 최준경
작곡 김광훈

2. 내 집에 띄웠던 람홍색기발
전호가 노을에 어리여오네
행복의 그 요람 잃지 않으려
이 가슴 전호에 대고산다네
아 정다운 나의 조국아

3. 해와 별 빛나는 조국이 없인
고향도 가정도 나도 없으리
한없이 귀중한 그대를 지켜
내 한생 총잡고 초소에 살리
아 정다운 나의 조국아

내 고향

2. 풍년새가 노래하는 곳
   사랑하는 내 고향일세
   협동마을 전야마다
   오곡백과 무르익는 곳
   (후렴)

3. 내 나라의 산천은 좋아
   사랑하는 내 고향일세
   사람마다 자유롭고
   사람마다 행복스런 곳
   (후렴)

내 고향을 나는 사랑해

2. 푸른 숲에 염소떼 뛰놀게 하고
산과 들은 열매로 주렁지우리
영원토록 여기서 우리 살리라 우리 살리라
내 고향 내 조국을 나는 사랑해
나는 사랑해 사랑해

내 고향의 들국화

2. 눈오는 깊은 밤 전호가에도
그날의 꽃향기 풍기여왔네
머나먼 행군길 걸어갈 때도
가슴에 힘을 주었네
(후렴)

3. 정답게 흔들던 그날의 꽃은
조국을 부탁한 처녀의 마음
향기론 들국화 곱게도 피는
내 고향 굳게 지키리
(후렴)

내 나라

작사 집체
작곡 김혁

2. 천리마 달리여 번영하는 내 나라
우리모두 화목하게 살아가는 곳
위대한 수령님을 천만년 모시고
통일된 조국에서 길이 살리라

수령님 모시고 길이 살리라

내 나라는 락원의 금수강산

작사 안정기
보통속도로 즐겁게 작곡 엄하진

2. 오곡백과 향기속에 웃음 절로 피여나고
자동화의 불빛속에 노래소리 흥겨워라
번영하는 내 나라는 락원의 금수강산
사람들 한마음 바쳐 충성을 꽃피우네
아 충성을 꽃피우네

3. 넓고넓은 이 세상에 나라들은 많다 해도
수령님 빛내시는 내 조국이 제일 좋네
주체의 꽃이 피는 락원의 금수강산
사람들 희망넘쳐 천만년 살아가리
아 천만년 살아가리

내 나라는 선군의 대가정

작사 박동성
작곡 전민철

2. 달밝은 저녁이면 앞마을 뒤마을이
군대간 아들딸의 자랑으로 흥성이네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되여
장군님선군령도 받들어가는
(후렴)

3. 총대로 지켜가는 내 나라 굳건하고
총대를 안고사는 인민은 강하다네
고난도 시련도 함께 헤치며
장군님령도로 백승 떨치는
(후렴)

내 나라 제일로 좋아

2. 벗들이 부어준 한모금 물도
내 고향 샘처럼 달지 못했소
(후렴)

3. 노래도 아리랑곡조가 좋아
멀리서도 정답게 불러보았소
(후렴)

4. 해와 별 비치여 밝고 정든 곳
내 다시 안길 땐 절을 하였소
(후렴)

내 나라의 가풍

2. 부모들은 충효의 맘 가보로 물려주고
자식들은 일편단심 그 뜻을 이어가네
자애로운 **김정일**장군 따르는 충효일심은
내 나라 대가정의 순결한 가풍일세

3. 주신 사랑 지붕되고 받드는 맘 기둥이 된
사회주의 우리 집에 가풍은 변함없네
자애로운 **김정일**장군 받드는 충효일심은
내 나라 대가정의 영원한 가풍일세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작사 구희철
작곡 허금종

2. 조용히 눈을 감아도 푸른빛 어리고
꿈에도 보이는 내 나라의 맑은 하늘
아 가없이 펼쳐진 푸른 저 하늘을
시련많던 불구름도 가릴수 없었네

3. 이 세상 그 어디나 하늘은 있어도
너보다 푸른 하늘 어디 가 찾으랴
아 은혜론 해와 별 찬란히 빛나는
내 나라의 정든 하늘 안고살리라

내 사랑 나의 평양

작사 최준경
작곡 우정희

2. 황홀한 거리들엔 비둘기 날아예고
사랑의 창문마다 행복의 노래 높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내 사랑 나의 평양
우리 영광 넘친 곳 우리 희망 꽃핀 곳
여기서 우리 산다

3. 장군님 높이 모신 빛나는 우리 평양
벗들도 예가 좋아 정들어 찾아오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내 사랑 나의 평양
우리 태양 빛나는 내 조국의 수도여
천만년 번영하라

내 삶이 꽃펴난 곳

2. 보람찬 내 삶이 꽃펴난 곳은
들끓는 건설장구내길인가
정다운 아이들 웃음 넘치는
락원의 불밝은 창가이런가
아 인생의 참된 권리를
값높이 안겨준 그 품이여라

3. 내 삶의 시작도 꽃펴난 곳도
어머니당의 그 품이여라
그 품이 있기에 나의 미래도
영원한 삶으로 빛을 뿌려라
아 내 삶의 순간순간을
충성의 한길에 바쳐가리라

내 조국 한없이 좋아라

작사 전병구
작곡 리학범

2. 공장엔 창조의 불꽃 날리고
들에는 오곡이 설레인다네
수령님령도로 부강한 나라
사회주의 내 나라 살기 좋아라

3. 온 세상 어데나 빛을 뿌리며
주체의 조국은 번영한다네
수령님품속에 행복한 나라
우리의 이 자랑 끝이 없어라

내 조국은 백두의 나라라네

2. 네 줄기 뻗어내려 굽이쳐간 봉마다
침략자 쳐물리친 자랑도 많아라
붉은기 휘날리는 내 조국강산은
위훈의 자랑어린 백두의 나라라네

3.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진 삼천리를
한품에 안고 솟은 네 기상 억세여라
태양도 찬란하다 내 조국강산은
세상에 둘도 없는 백두의 나라라네

내 조국은 어디 가나 노래 넘치네

2. 기계바다의 노래속에 자동화의 봄이 오고
해빛 넘치는 일터마다 웃음꽃 만발했네
일하면 할수록 행복이 주렁지니
날에 날마다 노래로구나 아 기쁨일세

3. 맑은 하늘엔 푸른 꿈이 노을로 피여나고
밝은 앞길엔 찬란한 미래가 펼쳐졌네
오늘도 좋지만 래일은 더욱 좋아
우리 생활은 노래로구나 아 기쁨일세

내 조국을 아름답게 꾸리자

작사 류동호
작곡 황진영

2. 한방울의 물도 아끼면 만복의 샘물되고
한와트의 전기라도 아끼면 기쁨의 불이 되리
(후렴)

3. 우리 살림 알뜰히 꾸릴 때 웃음꽃 만발하고
나라살림 깐지게 꾸릴 때 조국은 부강하리
(후렴)

내 조국의 밝은 달아

2. 머나먼 로고의 길 지키여드리는
   인민의 마음인가 달빛이 흐르네
   달아달아 밝은 달아 내 조국의 밝은 달아
   장군님 피로를 잠시나마 푸시게
   고요를 얹어주려마

3. 높은 산중턱에서 마중하던 달
   전선길 따라서며 바래드리네
   달아달아 밝은 달아 내 조국의 밝은 달아
   장군님안녕을 간절히 바란다고
   이 마음 아뢰주려마

내 조국의 숲이여

작사 정성환
작곡 우정희

2. 인민의 무릉도원 가꾸시는 한평생
바치신 그 사랑이 어려있는 나무여
고난을 이겨낸 선군의 대지에
너와 함께 애국의 맘 무성하리라
(후렴)

3. 금수강산 내 나라에 푸른 숲이 설레네
온갖 새들 날아들며 노래부르네
래일엔 후대들도 이 숲을 거닐며
장군님 애국의 뜻 이어가리라
(후렴)

내 어머니 내 조국

작사 리정술
작곡 김기홍

2. 한 자식을 길러도 열을 길러도
차별없는 어머니 그 사랑인가
키워준 조국의 그 품 못 잊어
멀리 가도 그리워서 부르는 이름
(후렴)

3. 내 만일 조국을 저버린다면
그 어디에 간대도 살곳 없으리
덕을 보려 조국을 사랑하는가
나를 키운 품이여서 사랑한다네
(후렴)

믿어달라 조국이여

작사 강립석
작곡 리 문

랑만적으로 (♩=130)

2. 비바람 세찬 곳에 우릴 찾으라
새 기적 솟는 곳에 우릴 찾으라
믿어달라 조국이여 우리 새 세대
우리 당 내세워준 전위들이다

3. 불구름 밀려와도 우리가 막고
사회주의붉은기도 우리 지키리
믿어달라 조국이여 우리 새 세대
당중앙 옹위해갈 전위들이다

복많은 내 나라

작사 허룡갑
작곡 황진영

밝고 랑만적으로 (♩=132)

2. 군대가 강하여 존엄도 높은
   군사강국 내 나라 하아 좋아
   그 어떤 대적도 두렴없이
   발구르며 나가네
   아 제일일세 아하 제일이야
   우리 행복 꽃펴주는 선군령도 제일일세

3. 주체의 빛발이 앞길 밝히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 하아 좋아
   천만이 애국의 한맘으로
   부강조국 세워가네
   아 제일일세 아하 제일이야
   만복을 누려가는 내 나라가 제일일세

불패의 강국이여 앞으로

작사 최준경
작곡 엄하진

2. 이 땅은 불락의 요새로 솟고
위성은 우주를 정복해간다
무적의 총검이 철진을 펼쳐
그 어떤 대적도 얼씬 못한다
나가자 불패의 강국이여 앞으로

3. 창조와 건설의 억센 힘으로
원하는 모든것 이룩해간다
장군님 이끄는 강성대국을
새 세기 령봉에 우뚝 세우리
나가자 불패의 강국이여 앞으로

붉은기높이 조선은 나간다

2. 혁명선배들이 넘기여준 기발
   홰불처럼 높이 들었다
   한마음이 되여 한뜻으로 뭉쳐
   일심의 기상 떨친다
   (후렴)

3. 온 누리를 향해 사회주의기발
   노을처럼 펼쳐나간다
   모진 고난 뚫고 세찬 광풍 헤쳐
   불굴의 기상 떨친다
   (후렴)

빛나는 조국

2. 삼천리 금수강산 자원도 넘치고
건설로 불타는 뜻 온 세상에 떨친다
자유와 행복으로 나래편 인민들아
부강한 민주조선 길이길이 빛내세
조선아 조선아 영원무궁 만만세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

2. 슬기론 우리 겨레 한피줄입니다
그리움 안고사는 한식솔입니다
북과 남 형제들 서로 정을 합치면
우리 민족 하나되는 통일이여라
아 통일 통일 통일이여라

3.백두에서 조국통일 해맞이하고
한나에서 통일만세 우리 함께 부르자
민족의 뭉친 힘 온 세상에 떨칠 때
태양조선 하나되는 통일이여라
아 통일 통일 통일이여라

사랑하는 나의 조국

2. 사랑하는 나의 조국아 그대는 귀중하여라
선렬들이 피흘리며 목숨바쳐 지켜낸 이 땅
우리의 손으로 가꾸어 꽃피운 나라
그대는 귀중하여라 사랑하는 나의 조국아

3. 사랑하는 나의 조국아 그대는 위대하여라
우리 당이 꽃피워가는 인민의 락원이여라
세상에 자랑높은 주체의 내 나라
그대는 위대하여라 사랑하는 나의 조국아

사랑하라 어머니조국을

2. 비바람 눈보라 헤치시며
   온넋을 선군에 바치셨네
   장군님 그 모습 눈에 어려
   뜨거운 마음들이여
   (후렴)

3. 선군에 바치는 사랑없이
   그 어이 애국을 말하랴
   장군님 몸바쳐가시는 길
   따라서는 마음들이여
   (후렴)

사랑하자 나의 조국

작사 엄애란
작곡 림대술
환희와 결의에 넘쳐 (♩=144)
1.아 침해가 찬 란한— 우 리 조 국— 은
인 민들이 주 인된— 행 복 한 나 라
(후렴)
사 랑 하 자 나 의 조— 국
김 정 일 장 군 님의 품 이 여
사 랑 하 자 나 의 조— 국 영
원 히 빛 내 가리 라 —

2. 태여나면 만복이 기다려주고
꿈을 꾸면 그 소원 꽃피는 나라
(후렴)

3. 이 땅우에 불구름 밀려온대도
사회주의꽃바다 다칠수 없네
(후렴)

사회주의는 우리거야

2. 남의 식 남의 풍을 우린 안 따라
바람이 불어와도 우린 든든해
(후렴)

3.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는
모두가 살기 좋은 락원이라네
(후렴)

사회주의 지키세

2. 지키며는 승리요 버리면 죽음일세
향도성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세
(후렴)

3.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
향도성 받들어 온 세상에 빛내세
(후렴)

산으로 바다로 가자

작사 김조규
작곡 리면상
보통속도로 밝고 류창하게
1.저 기 바 다 로 가 자 저 기 바 다 로 가
자 저 기 바 — 다 로 — 가 자 —
약간 빠르게
흰 물 — 새 훨 훨 파 도 우 에 넘 나 들
고 아 득 — 한 수 평 선 엔 흰 — 돛 이 —
아 름 다 운 저 — 기 저 바 다 로 — 우
리 가 자 —
(후렴)
빠르고 경쾌하게
산 에 가 면

2. 저기 산으로 가자 저기 산으로 가자
저기 산으로 가자
맑은 물 철철 바위돌에 굴러가고
새소리 바람소리 마음에 들려오는
저기 저 산으로 우리 가자
(후렴)

살기 좋은 내 나라

2. 꽃피는 이 강산 어데나 창조의 노래는 넘치고
사람들모두다 화목해 친형제로 정다워라
누구나 일하고 배우며 근심과 걱정을 모르는
아 내 나라 살기 좋은 내 나라

3. 피여난 한떨기 꽃에도 만풍년 설레는 들에도
은혜론 사랑은 깃들어 일할수록 즐거워라
여기서 당의 뜻 꽃피워 인민은 길이 살리라
아 내 나라 살기 좋은 내 나라

선군룡마 타고 사회주의 빛내세

작사 신운호
작곡 계훈경

2. 번개같이 달린다 선군의 룡마
   대고조의 불길로 위훈 빛낸다
   위대하신 장군님 부르심따라
   만년대계기념비 일떠세운다
   (후렴)

3. 신심넘쳐 달린다 선군의 룡마
   사회주의번영기 펼치여간다
   위대하신 장군님 두리에 뭉쳐
   백전백승 강국의 위용 떨친다
   (후렴)

선군의 나의 조국아

작사 황성하
작곡 차성철

2. 사람마다 기쁨넘친 강산에 노래소리 높아라
선군으로 비약하는 이 땅에 새 기적이 솟는 내 나라
너의 꽃피는 생활도 너의 전변의 력사도
우리 장군님 총대로 펼쳐주시네
(후렴)

3. 선군령장 높이 모신 강산에 부강조국 솟는다
선군으로 번영하는 이 땅에 천만복을 누릴 내 나라
너의 희망찬 앞날도 너의 영원한 승리도
우리 장군님 총대로 열어주시네
(후렴)

수령복 인민복 꽃핀 내 나라

2. 우리가 누려가는 수령복에는
   절세의 위인 모신 긍지 넘치네
   그이가 자랑하신 인민복에는
   어버이 그 믿음 흘러넘치네
   (후렴)

3. 세상에 천만복이 있다 하여도
   조선의 이 큰 복에 비길수 없네
   수령과 우리 인민 혼연일체로
   천만년 대대로 복을 누리리
   (후렴)

심장을 바치자 어머니조국에

2. 자식들 얼굴에 웃음꽃 필 때에
그대의 어깨엔 더 큰 짐 놓였네
철들어 마음에 그 짐을 져보니
키워준 그 은정 눈시울 뜨겁네
(후렴)

3. 그대를 지키는 성스런 이 길에
후대들 누려갈 행복도 있어라
값높이 바치는 오늘의 애국은
내 나라 번영의 초석이 되리라
(후렴)

세금없는 우리 나라

작사 김재화
작곡 김제선
흥겹게
1.경 —사났 네 경사났 네 우리나라경사났 — 네
수 —령님 의 은덕으 —로 세 금없 는나 라됐 네
아 ———— 살 —기좋 은나 — 라 어 델 —가나
기 쁨 —이요 어델가나행복일 세 — 우리나라바라보
네 아 —수령 님 마련해주 —— 신 사회 —주의
우 리 —제 도 길 이길 이빛 내가 세 ———

2. 우리 행복 우리 기쁨 남녘에도 울려가니
겨레에겐 새힘 주고 원쑤에겐 폭탄되네
아 수령님 따사로운 사랑
금수강산 삼천리에 해빛처럼 넘쳐나네

3. 경사났네 경사났네 우리 나라 경사났네
수천년을 내려오던 세금까지 없어졌네
아 살기 좋은 나라
온 세상이 부러워서 우리 나라 바라보네

아 수령님 마련해주신
사회주의 우리 제도 길이길이 빛내가세

세상에 부럼없어라

작사 집　체
작곡 김　혁

빠르지 않게 깊은 정서를 가지고

2. 우리 힘 꺾을자 그 어데 있으랴
풍랑도 무섭지 않네
백두의 넋을 이어 빛나는
내 조국 두렴몰라라
(후렴)

3. 동무들 다같이 노래를 부르자
손풍금소리 맞추어
천리마 나래펴는 내 조국
백화가 만발하였네
(후렴)

자랑하자 구월산

2. 자랑하자 자랑하자 구월산을 자랑하자
장군님이 오셨던 날 일만경치 펼쳐드린
천하의 제일명산 구월산을 자랑하자
라 세상에 자랑하자

3. 자랑하자 자랑하자 구월산을 자랑하자
장군님이 오셨던 날 길이길이 전해가며
인민의 제일명산 구월산을 자랑하자
라 세상에 자랑하자

장군님 높이 모셔 꽃피는 나라

작사 강용복, 안성
작곡 리광오

밝고 희망에 넘쳐 (♩=96)

2. 우리모두 친근한 그이를 아버지로 모신 나라
너도나도 화목한 친형제 한식솔을 이루었네
(후렴)

3. 우리 태양 앞길을 밝히여 희망 가득 넘친 나라
붉은 기발 더 높이 날리며 사회주의 떨쳐가네
(후렴)

장군님 높이 모신 내 조국

작사 신운호
작곡 리광오

2. 일심의 대가정을 한품에 꽃피우시고
내 나라 사회주의 총대로 지켜주시네
위대하신 우리 령도자 친근한 **김정일**장군
태양으로 받들어모신 내 조국 불패이여라

3. 주체의 강성대국 이 땅에 높이 세우고
찬란한 공화국기 만대에 휘날려가리
위대하신 우리 령도자 친근한 **김정일**장군
태양으로 받들어모신 내 조국 영원하여라

조국과 나

작사 류동호
작곡 황진영

2. 조국은 조국은 떠나선 못살 품
내 희망 꽃펴준 행복의 젖줄기
그대의 품에선 눈비도 따뜻해
난관도 웃으며 헤쳐가리
아 조국은 나의 어머니

3. 조국은 조국은 나의 피와 살
영원히 변함없을 나의 삶의 품
그대와 운명을 같이한 이내 몸
아껴둘 목숨이 또 있으랴
아 조국은 나의 어머니

조국과 인생

작사 전동우
작곡 박진국

2. 끝없는 세상을 굽어보며는
인생은 큰산의 작은 모래알
그 무게 저울눈에 볼수 없어도
조국에 보탠다면 하나의 산악

3. 무엇을 위해 사는 생이였던가
무엇을 위해 꽃핀 청춘이던가
조국은 영원하고 생은 짧아도
조국에 보탠다면 빛나는 영생

조국도 빛나리 청춘도 빛나리

작사 김수철
작곡 김문혁

랑만적으로 (♩=140)

2.피끓는 청춘들아 조국위해 바치자
그러면 내 조국은 더욱 부강해
은혜로운 품속에 청춘은 꽃피고
나라에 바친 위훈은 금별로 빛나리
아 조국도 빛나리 청춘도 빛나리

3.피끓는 청춘들아 조국위해 빛내자
그러면 내 조국은 영원하리라
끝없이 밝은 미래로 조국은 달려가고
우리의 청춘 영원히 이 땅에 새겨지리
아 조국도 빛나리 청춘도 빛나리

조국산천에 해 둥실 떠온다

작사 조령출
작곡 윤영환

사랑스럽게

2. 천년을 두고 기다린 세월
조국산천에 새날이 밝았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곳
로동의 노래 넘치고
행복의 나라 새세상이로구나
(후렴)

조국은 나의 생명

2. 눈비바람 몰아칠수록 운명을 맡길 품은
어머니 내 조국밖에 나에겐 없어라
최전선길 걸으시는 장군님 그 로고가
천만년 행복으로 꽃피는 나라
아 조국은 나의 생명 조국은 나의 생명

3. 우리모두 떠나선 못살 영원한 민족의 집
장군님 높이 모신 내 조국이여라
강성대국지붕아래 만복을 누려가며
김일성민족으로 번영할 나라
아 조국은 나의 생명 조국은 나의 생명

조국은 너를 알게 되리

작사 류동호
작곡 황진영

2. 행복의 열매가 주렁질 때에
땀흘린 보수를 바라지 말자
아 잘 익은 이삭은 머리숙인다
어머니조국은 너를 알게 되리

3. 한생을 불타는 애국에 살면
영원한 태양이 축복을 주리
아 그대의 눈빛은 세상을 본다
어머니조국이 너를 알게 하라

조국은 내 삶의 정든 집

작사 최준경
작곡 안정호

2. 사랑의 전설로 날이 흐르고
행복의 열매가 익는 곳
장군님식솔로 한가정 이룬
인민은 화목하여라
(후렴)

3. 이 세상 천지가 열백번 변해도
일심의 큰집을 지키리
장군님령도로 빛나는 조국
내 한생 받들어가리라
(후렴)

조국을 위하여 불타는 시절

작사 최준경
작곡 황진영

2. 삼태성 기우는 깊은 밤에도
   우리의 눈동자 별로 빛나네
   전호의 눈비도 달게 맞으며
   새날의 해돋이 안아올렸네
   (후렴)

3. 장군님 우리를 제일 믿기에
   바쳐갈 심장은 더욱 불타라
   총폭탄용사로 위훈 떨칠 때
   조국은 영생을 안겨준다네
   (후렴)

조국을 위하여 빛나게 살자

2. 인생의 공식은 따로 없어도
참되게 사는 길 있네
자신을 위한 삶 후회로 남고
조국에 바친 삶 빛나네
(후렴)

3. 인생은 시작도 잘 떼야 하지만
그보다 마무리 중요해
끝까지 신념을 안고살 때에
조국은 그 이름 부르리
(후렴)

조국이 귀중함을 깨달은것은

작사 최로사
작곡 설명순

보통속도로 정서깊게

2. 조국이 귀중함을 내 진정 깨달은것은
   시련의 길을 걷던 그날이였네
   별빛이 내리는 적후의 밤
   장군님 그리울 때
   아 사무쳐왔네
   귀중한 어머니 내 조국

3. 전화의 그 나날에 내 진정 깨달았기에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귀중해
   내 마음 언제나 그날에 살며
   조국을 받들어가리
   아 받들어가리
   귀중한 어머니 내 조국

조국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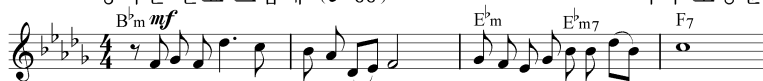
2. 조국이란 무엇인가 고지의 진달랜가
전호속의 나의 노래 울리던 참호인가
총대 총대를 들고 사수한 땅
총대 총대로 지킨 기발
나의 가슴에 새겨줬네 조국은 총대라고

3. 조국이란 무엇인가 전선길 야전찬가
강성부흥아리랑이 넘치는 락원인가
총대 총대가 강해 굳건한 땅
총대 총대로 받든 주권
나의 심장에 새겨줬네 조국은 총대라고

조국이여 그대가 굳건한것은

2. 품에 안아 키워준 어머니를 따르듯
고마운 우리 당을 인민은 따르네
조국이여 내 사는 사회주의나라여
효성깊은 인민있어 그대는 굳건해

3. 천금보다 귀중히 사람을 내세운
주체의 우리 제도 번영하여라
조국이여 내 사는 사회주의나라여
폭풍이 불어와도 그대는 굳건해

조국이여 말하라

작사 김춘호
작곡 조경준

2. 강산에 눈비 내리여도 갈길 멈춘 날이 없고
별들이 잠든 한밤에도 편히 쉬신 밤이 없네
그 품에 안겨 강성하는 조국이여 말하라
장군님 해와 달 이어 안겨주신 그 사랑을

3. 사랑을 다해 우리 미래 아름답게 꽃펴주시고
열정을 다해 선군조선 무궁토록 빛내주시네
그 빛발따라 부흥하는 조국이여 말하라
장군님 인민을 위해 쌓으신 그 업적을

조국이여 말해다오

작사 전동우
작곡 황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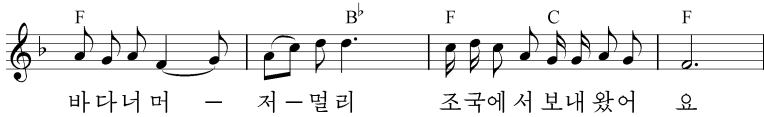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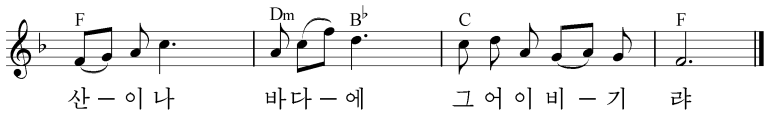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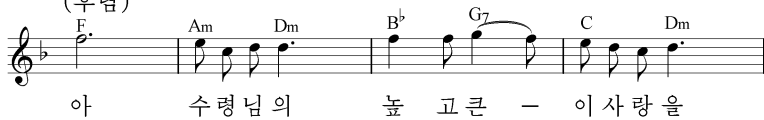
2. 그대가 비내리는 궂은 길 헤칠 때
내 발길 마른 땅 고른적 없던가
순간도 있다면 순간도 있다면
조국이여 말해다오
내 어이 그대의 내 어이 그대의
아들이라 부르랴

3. 고요한 밤이면 스스로 묻고묻네
내 잠시 그 은혜 잊은적 없던가
있다면 말해다오 있다면 말해다오
조국이여 말해다오
내 어이 그대의 내 어이 그대의
아들이라 부르랴

조국에 청춘을 바쳐가리

작사 신병강
작곡 황진영
랑만적으로 (♪= 189)
C♯m F♯m G♯7 C♯m
1.금 별 로 빛 나 는 영 웅 들 생 각 하 면
C♯7 F♯m B7 E G♯7
못 잊 을 전 사들 나 에 게 말 해 주 네
C♯m F♯m G♯7 C♯m
한 목 숨 바 ㅡ 치 며 돌 격 로 열 ㅡ 어 간
C♯7 F♯m G♯7 C♯m
(후렴)
그 ㅡ 날의 영 웅은 청 춘이 였다 고 ㅡ 가
E A E
슴 불 타 라 ㅡ 우 리 도 청 춘 ㅡ 어
A E B7 E
머 니 내 조 국 에 ㅡ 청 춘 을바쳐 가 리

2. 이 땅에 솟아난 기념비 바라보면
천리마시대의 영웅들 안겨오네
재더미 헤치고 락원을 일떠세운
그날의 영웅도 청춘이였다고
(후렴)

3. 년대와 년대에 청춘을 빛내여온
영웅들 그 위훈 이 가슴 울려주네
우리 당 받드는 충성의 한길에
그들처럼 청춘을 값있게 살리
(후렴)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2. 수령님께서 수령님께서 돈을 주실줄은
그날까지 그날까지 생각을 못했지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복구건설 다그치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위해 보내셨어요
(후렴)

3. 이역에서 이역에서 나서자라는
아들딸도 아들딸도 지덕체 갖추어서
사회주의조국의 역군이 되여라
어버이심정으로 수령님이 보내셨어요
(후렴)

조국의 진달래

작사 박필모
작곡 정세룡

2. 한송이 꽃에도 한줌의 흙에도
전우들의 피가 스민 어머니품이라네
못 잊을 이 강산을 한품에 안아보며
해방된 조국의 그날을 그려보네

3. 혁명의 한길우에 비바람 사나워도
총을 쥔 이 가슴엔 불길이 타오르네
원쑤를 몰아낸 금수강산 삼천리에
장군님 밝은 해살 영원히 비쳐가리라

조선행진곡

2. 자유와 평화의 기를 날리며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리라
(후렴)

조선아 다시 안아보자

작사 최준경
작곡 엄하진

보통속도로 절절하게

2. 광복의 봄 기다리는 겨레의 마음인가
천만송이 진달래도 이슬에 젖었구나
아 조선아 다시 안아보자
혁명의 붉은 씨앗 네 품에 뿌려가리

3. 오늘에는 내 홀로 조국땅 밟아도
래일에는 장군님을 모시고 돌아오리
아 조선아 다시 안아보자
금수강산 삼천리에 새봄은 오리라

조선아 미래를 향하여

작사 김정훈
작곡 량영철

2. 위대한 나의 조국아 슬기론 나의 조선아
너의 공장과 전야엔 전변의 노래 높고
너는 애국의 솟는 힘 나래로 펼쳤다
(후렴)

3. 위대한 나의 조국아 슬기론 나의 조선아
너의 붉은기대오는 언제나 백승해
너는 세계가 부럽게 부강해지리라
(후렴)

조선아 이 자랑 노래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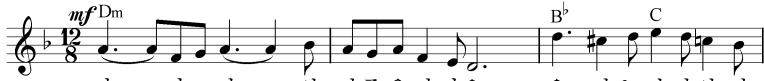
2. 이 땅은 백두의 붉은기로 수령님 가꾼 락원
우리는 주체의 한길 가는 수령님인민일세
(후렴)

3. 나라도 인민도 수령님의 존함을 지닌 영광
장군님 따라서 온 세상에 영원히 빛내가세
(후렴)

조선은 하나다

작사 안창만
작곡 성동춘

행진조로 힘있게

2. 슬기로운 민족의 가슴에 애국의 피가 끓는다
짓밟힌 남녘의 강산은 원한에 몸부림친다
통일이냐 분렬이냐 력사의 물음앞에
겨레여 나서라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3. 단결하자 조선민족아 통일의 문을 열자
혁명의 태양을 따르는 민족의 마음은 하나
수령님 밝혀주신 5대강령 홰불을 따라
자주의 한길로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통일이냐 분렬이냐 력사의 물음앞에
겨레여 나서라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조선의 그 이름 하늘에 새겼네

2. 장군님 안겨주신 그 위용 떨치며
우리의 광명성이 유난히 빛나네
끝없이 넓고넓은 우주의 별나라에
민족의 슬기와 용맹이 나래치네
(후렴)

3. 장군님 길이 모셔 끝없이 번영할
내 조국 노래하며 광명성 날으네
내 나라는 지구를 내려다보고
세계는 조선을 우러러본다네
(후렴)

조선의 모습

작사 김정훈
작곡 엄하진

2. 천만사람 말을 해도 한목소리요
천만대오 걸어가도 한걸음일세
(후렴)

3. 세찬 폭풍 몰아쳐도 흔들림없고
우리 세대 바뀌여도 변함없으리
(후렴)

주체의 한길은 조선의 행군길

작사 리성철
작곡 박무준

전진적으로 랑만을 가지고

2. 넘어갈 령마루 높아 다른 길 찾아서 가랴
언제나 우리 식대로 억세게 걸어서 가리
그 길에 민족의 존엄 민족의 존엄있네
(후렴)

3. 주체의 새시대 펼친 자랑찬 승리의 한길
혁명의 붉은기높이 힘차게 달려갈 한길
그 길에 조국의 미래 조국의 미래있네
(후렴)

태양조선의 력사가 흐르네

작사 최준경
작곡 김광훈

2. 태양의 그 빛발 영원하다고
낮에도 밤에도 종이 울리네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안고
선군의 내 조국 번영한다네
아 태양조선의 력사가 흐르네

3. 장군님령도로 조선은 빛나
래일도 영원히 종이 울리리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함께
주체의 위업은 불멸하리라
아 태양조선의 력사가 흐르네

평양아 전해다오

2. 수령칭송탑을 찾으면 그 충정 심장을 울리고
인민사랑거리에 서면 그 은정 그 은정 뜨겁네
평양 평양아 말하라 너의 번영기 펼치며
우리 장군님 바치신 로고 못 잊어 못 잊어 못 잊어

3. 그 길에서 태양도시로 이 땅에 찬란히 꽃피고
그 품에서 선군수도로 누리에 누리에 빛나네
평양 평양아 전하라 너의 이름을 떨치며
우리 장군님 쌓으신 업적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평양은 영원한 내 사랑

2.조국을 지켜낸 영웅들 모습
전승의 탑으로 솟아
광장에 위훈을 안고오라고
내 앞길 축복해주네
(후렴)

3.내 삶의 행복을 안아가꾸며
태양이 밝고밝은 곳
내 너를 떠나서 멀리 간대도
마음엔 작별이 없네
(후렴)

포전길 걸을 때면

2. 탐스런 이삭들이 고개를 숙일 때면
   귀전에 울려오는 수령님 그 말씀
   들판에 넘쳐나는 구수한 낟알향기에
   평생시름이 풀린다 하신 그 말씀 못 잊습니다

3. 오늘도 평양하늘 숭엄히 바라보면
   우리를 불러주는 수령님 그 유훈
   만풍년노래속에 당의 뜻 꽃피워가며
   못다 바친 효성을 다해 그 유훈 지키렵니다

흘러라 나의 정든 대동강

작사 리영백, 백수길
작곡 김정수, 박무준
밝고 희망차게
mp
Dm A
1.푸 른 산 굽—— 이 돌 아 기 름 진
A A7 Dm Gm Dm
들—— 을 지 나 맑 은 물 유 유히 흘 러
Dm A Dm
흐—르 는 어 머니 강 — 이 여 — 내 어 린
Dm A A7 Dm
그—— 시 절 에 풀 피 리 불——며 불 며 푸
Gm Dm A7
른 꿈 키 우 던 너 —의 기— 슭 을 내 어이
A7 Dm C C7 F
잊 — 으 랴 — 떨 어 져 살 — 수 없 — 는

2. 꽃피는 기슭에도 푸르른 물길에도
은혜론 해빛이 넘쳐흐르는 락원의 강이여
로동의 첫 기쁨도 청춘의 사랑도
노을이 불타는 강반을 거닐며 정답게 속삭였네
너보다 더 좋은 강 세상에 또 있으랴
아 흘러라 나의 정든 대동강

흥하는 내 나라

2. 백리 양어 넓은 못엔 고기떼가 욱실대고
곧추 뻗은 고속도로 눈뿌리 아득해라
(후렴)

3. 부흥하는 내 나라 몰라보게 변모되니
어딜 가나 웃음이요 어딜 가나 노래로세
(후렴)

해빛밝은 두만강

2. 배사공가락에 눈물젖던 강
오늘은 행복에 밝게 웃는 강
장군님 물결에 추억 실을 때
이 나라 력사를 안고 설렜네
장군님 물결에 추억 실을 때
이 나라 력사를 안고 설렜네

3. 번영하는 내 조국 비껴안고서
해빛밝은 두만강 넘쳐흐르네
세상에 내 나라 빛내가리라
장군님 그 맹세 파도쳐가네
아 내 나라 빛내가리라
장군님 그 맹세 파도쳐가네

루루 해빛밝은 두만강

해와 별 빛나는 나의 조국이여

2. 따사로운 봄날처럼 기쁨이 꽃펴나고
   만풍년의 가을처럼 행복이 무르익네
   아 해와 별 빛나는
   살기 좋은 나라 인민의 나라 나의 조국이여

3. 온 세상에 높이 솟은 은덕의 지붕아래
   온 나라가 한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네
   아 해와 별 따라서
   공산주의락원 꽃피워가는 나의 조국이여

휘날려라 공화국기 우리 삼색기

2. 휘날려라 공화국기 우리 삼색기
너보다 자랑스런 기발없어라
하얀색은 백두산의 하얀 눈이 물들인 색갈
영원히 가를수 없는 민족의 순결한 모습
펄펄펄펄 휘날려라 우리의 기발

3. 휘날려라 공화국기 우리 삼색기
너보다 희망찬 기발없어라
푸른색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물들인 색갈
찬란한 해와 별 비쳐 밝아오는 우리 아침
펄펄펄펄 휘날려라 우리의 기발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작사 김상오
작곡 김옥성

2.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심었더니 마을에 웃음이 폈소
처녀들 아침낮에 꽃보며 웃고
저녁에는 꽃속에서 노래부르오
아 처녀들 아침낮에 꽃보며 웃고
저녁에는 저녁에는 꽃속에서 노래부르오

3. 노래소리 하늘 멀리 울리여가니
여기가 락원인줄 알아나주소
홍옥 국광 알알이 붉게 익을 때
이 가슴도 붉게 핀줄 알아나주소
아 홍옥 국광 알알이 붉게 익을 때
이 가슴도 이 가슴도 붉게 핀줄 알아나주소

4.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심었더니 나라에 꽃이 피였소
이 나라는 꽃피는 사회주의의
크나큰 하나의 락원이라오
아 이 나라는 꽃피는 사회주의의
크나큰 크나큰 하나의 락원이라오

아름다운 고향

2. 조국을 지키며 원쑤를 부시는
용사들 자라난 곳 아름다운 고향
김장군이 주신 땅에 가을이 오면
하늘에 울려가는 풍년의 노래
승리를 믿으면서 싸우는 마을아
아름다운 고향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시절

작사 김영철
작곡 리 문

2. 나의 어머니 청춘시절
해주와 하성에서 흘렀네
첫 렬차 떠나보내며
울고웃던 그 처녀가
나의 어머니였네

3. 나의 보람찬 청춘시절
대를 이어 조국에 바치리
그날의 아버지처럼
그 나날의 어머니처럼
아 빛나게 살리

어머니 내 조국

작사 장선국
작곡 전 권

2. 어머니를 잊는 아들 어이 있으랴
길러준 내 조국을 우린 못 잊어
저 하늘에 이름없이 흩어진대도
조국이여 그대와는 한피줄이네
(후렴)

3. 우리 운명 이 땅우에 하나이듯이
우리위한 조국도 하나이여라
준엄한 날 또다시 열백번 와도
조국이여 그대와는 한목숨이네
(후렴)

여기가 내 사는 조국이여라

2. 만경대고향집 정든 뜨락에
 이 나라 길들이 이어져있네
 수령님력사로 자랑찬 내 나라
 여기가 내 사는 조국 장군님품이여라

3. 대동강 맑은 물 흘러내리여
 인민의 마음도 순결하여라
 수령님 받들어 부강한 내 나라
 여기가 내 사는 조국 장군님품이여라

영웅의 나라 아름다워라

작사 허수산
작곡 박진국

2. 그대는 어제날 제자였건만
오늘은 스승으로 높이 서있네
조국이 그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여주네
아 영웅은 나의 스승이라네

3. 위인을 모시여 빛나는 조국
그 품에 영웅도 스승도 있네
나라의 영웅도 영웅의 스승도
우리의 장군님 키워주셨네
아 영웅의 내 나라 아름다워라

온 세상에 빛나는 조선아

작사 차영도
작곡 구승해
행진조로 보무당당히 (♩=120)
1.찬 란 하 다 해 와 별 국 기 에 빛 나 는 조 선
아 수 령 님 의 그 미 소 강 산 에 넘 치 는 땅
(후렴)
아 위 대 한 장 군 님 선 군 위 력 떨 치 는 나
라 온 세 상 에 빛 난 ㅡ 다 부 강 조 선 만 만
세 2.혁 ㅡ 세 온 세 상 에 빛 난 ㅡ 다 부 강
조 선 만 만 세

2. 혁명의 만난을 웃으며 헤쳐온 조선아
걸음마다 승리를 떨쳐온 불굴의 땅아
(후렴)

3. 번영하라 내 나라 해솟는 백두의 조선아
무적강군 총대로 행복을 안아온 땅아
(후렴)

온 세상에 빛난다 부강조선 만만세

우리 사는 마을

2. 아침이면 이슬 맺힌 언덕을 넘어
화목한 웃음소리 들에 넘치고
해저무는 저녁이면 주인을 불러
종소리 울려가는 마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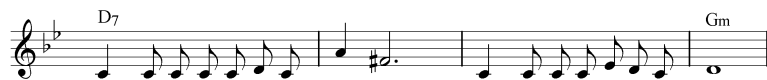
3. 별무리 흐르고 달이 솟으면
처녀들 노래속에 밤은 즐겁네
행복이 끝없어서 잠 못이루는
창마다 불밝은 마을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에 으뜸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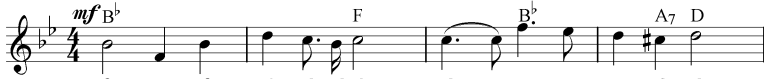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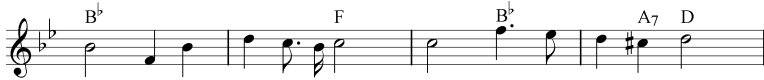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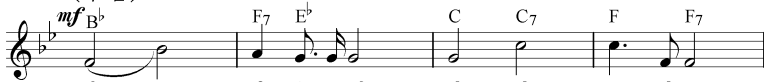
2. 가꾸어 주렁지는 행복은 우리의것
받들어 번영하는 조국도 우리의것
주인으로 산다네 자랑안고 산다네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에 으뜸일세

3. 다같이 일을 하고 다같이 잘살아
누구나 심장으로 받드는 우리 나라
수령님이 세우셨네 장군님이 이끄시네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에 으뜸일세

우리의 7.27

감격에 넘쳐 (♩=130)
작사, 작곡 리종오, 황진영
mf Gm Cm
1. 가 슴에 — 훈장을 달 고 전 우들 — 모여왔 네
D7 Gm
전 승의 — 기쁨을 안 고 전 우들 — 모여왔 네
Gm G7 Cm
공 장과 — 협동 — 벌 의 그 옛날 — 병사들 이
Cm Gm D7 Gm G7
오 늘은 — 군복을 떨쳐입고 모 두 — 모여왔 네
(후렴)
f Cm Gm D7 Gm G7
칠 이칠 — 우리의 칠 이칠 — 승 리의 — 칠이 — 칠
Cm Gm D7 Gm
전 우여 — 그날의 우리노래 함 께 — 부르 — 자

2. 순간도 승리의 신심 잃지를 않았다네
때로는 승리를 위해 목숨도 바치였네
불타는 전선길과 용광로앞에서
우리는 한마음 이날위해 힘껏 싸웠다네
(후렴)

3. 가슴에 훈장을 달고 전우들 모여왔네
전승의 축포를 보며 전우들 맹세하네
원쑤가 덤벼들면 내 나라 내 조국 위해
또다시 멸적의 총창 들고 우리 나가리라
(후렴)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작사 김우철
작곡 박한규
보통속도로 장중하게
1.백 두 산 천 지 에서 제 ㅡ주 도 끝 까 지
새 기 발 높 이 ㅡ여 삼 천 만 은 나 섰다
산 천 도 노 래 하라 이 날 의 감 격 을
조 선 은 빛 나ㅡ는 인 ㅡ 민 의 나 라 다
(후렴)
아 ㅡ 자 유 조 선 인 민 공 화국
해 와 별 빛 나 라 조 국 의 앞 길 에

2. 인민의 줄기찬 힘 하나로 뭉치여
새 나라 헌법을 로력으로 세웠다
초목도 나붓기라 이날의 승리를
조선은 영원한 인민의 나라다
(후렴)

3. 오곡은 물결치고 증산은 빛나오리
북조선건설을 새 조선의 토대로
남북이 힘을 합해 원쑤를 부시자
조선은 부강한 민주의 나라다
(후렴)

4. 권리는 인민에게 최고회의 열어서
우리의 대표로 중앙정부 세우자
민족의 영웅이신 장군님 받들어
조선은 동방에 빛나는 나라다
(후렴)

위대한 내 나라

2. 내 나라는 인구 많아 큰 나라더냐
   일심단결 위력으로 빛나는 나라
   김일성민족의 자존심높이
   통일의 강성대국 위업 떨치리
   백두장군 높이 모셔 위대한 내 나라

3. 내 나라는 사회주의 불패의 강국
   총대로 무적필승 떨치는 나라
   주체의 붉은기로 누리를 덮을
   내 조국은 영원한 태양의 나라
   백두장군 높이 모셔 위대한 내 나라

위대한 우리 조국

2. 얼마나 행복한 삶 그 품에서 누렸던가
그 얼마나 온갖 시련 헤쳐
그대 존엄 지켜왔던가
참다운 삶의 요람 은혜론 어머니품
(후렴)

3. 백두에서 뻗어내린 삼천리 내 조국
이 땅우에 통일강국 세워
온 세상에 위용 떨치리
인민이 받드는 거룩한 그대의 품
(후렴)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중에서 혁명가극 《피바다》

울지 말아 을남아

울지 말아 을남아 귀여운 아가
하루종일 얼마나 배고팠느냐
애처롭게 우는 소리 가슴 허빈다
울지 말아 을남아 귀여운 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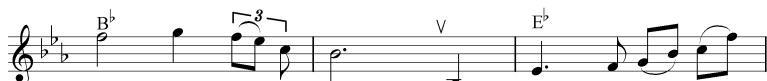
가난한 살림에도 살뜰한 정 오고가네

귀여운 딸애는 제가 안 먹고
어머니를 생각하여 범벅 남기네
가난으로 밥그릇은 비여있어도
가슴속엔 살뜰한 정 차넘칩니다

소 쩍 새 야

아버지의 말을 하면 어머니가 우신단다
어머니가 우시며는 나도 울고파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너와 나와 어머니를 도와야 한단다

아 백두산

숭엄하게 (♩=58)
아 — 아 — 백두 산 조 종 의 산—
아 아 ——백—두— 산 —아 조— 종 —의 산—
아 반 만 —년 유— 구 —한 력 사 —를—이—
어 조 국 —의 하늘 높 —이 솟— 아 —있 는
산 —천 지 의 맑 은 물— 에 무
지 개 비—끼 며 광 복 의 새 —아 —
침 —은 밝— 아 —오 리— 라 —

새봄이 왔네

봄이 왔다 산새들 노래부르고
산천에 물소리 정답게 흘러내리네
이산저산 언덕에 새싹이 푸르듯이
억눌린 살림에도 새봄은 찾아오리
(후렴)

조선의 백두산에 어찌 비기랴

세상형편 모르고 앞잡이구장은
모범부락 문제없다 아침까지 하누나
수비대장 칼자루를 철커덕거리며
포대공사 다그치라 호통만 치네

애타는 이 마음 잊지 말아라

조국의 광복 위해 싸우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너무 근심마세요
우리 앞길 밝혀주는 밝은 태양 비쳐요
그 빛을 우러러 싸워가는 이 길이
나라를 광복하는 길이랍니다

혁명은 아무리 간고하여도

혁명은 아무리 간고하여도
결심 품고 모두다 나서야 하리
광복의 길 따라서 나선 아들을
어머니도 도와서 싸워야 하리

첫 임무 받아안고

높뛰는 가슴을 조용히 달래가며
혁명임무 다하리라 맹세합니다
피맺힌 원한속에 살아오던 어머니
오늘은 혁명의 길 나섰습니다

녀성들도 모두다 힘을 합치면

강기슭의 모래알은 흩어지여도
산기슭의 바위는 못 움직이리
녀성들도 모두다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원쑤도 이겨낸다오

어머니는 글을 배우네

서정적으로 (♩=66)
어머니의 —글소—리 —밤하늘에 울리— 고
별들—도 —이밤에—는 —잠—들지 않— 네
꽃으—로 —피—여—날 —어머니그 마— 음
새세—상 —내다보—며 —글을—배 우— 네
아 ———— 피눈물—로 —살아온어 머— 니
한자두자 —이한밤—에 —글을—배 우— 네

사랑하는 오빠를 유격대에 보내자요

성스러운 싸움의 길 오빠가 떠나면
우리들이 어머니를 도우렵니다
나라찾는 싸움터에 나서는 네 오빠
이밤으로 군복 지어 입혀보내자

그 앞길 밝혀다오

달아달아 둥근달아 저 산에 솟은 달아
사랑하는 우리 오빠 싸움의 길 떠난다
해와 같이 밝게 비쳐 그 앞길 밝혀다오
아
해와 같이 밝게 비쳐 그 앞길 밝혀다오

혁명의 한길에서 싸워가리라

피바다에 잠겨있는 내 나라 찾기 위해
혁명의 총을 메고 싸워가리라
아 조국의 광복 위해
혁명의 전사되여 싸워가리라

조국을 광복하고 오빠가 돌아오면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가리라
아 조국의 광복 위해
혁명의 한길에서 싸워가리라

반갑게 다시 만날 그날은 오리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아주며
공청에서 주는 임무 다하여주오
굳게 다진 맹세를 지켜싸울 때
반갑게 다시 만날 그날은 오리

우리 비록 서로 멀리 헤여진대도
혁명의 한길에서 함께 싸우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세찬 타향에서 아이들 키우며
밝은 세상 돌아올 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나라찾는 싸움의 길에
보내는 이내 마음 기쁨에 눈물지누나

혁명임무 기어이 완수하리라

무엇인들 못 나르랴 혁명위한 길
불바다도 넘어서 임무 다하리
나라없는 설음에 가슴을 치는
녀성들을 묶어세워 싸워나가리

원쑤들의 경계가 심하다 해도
혁명임무 기어이 완수하리라

유격대원호의 노래

뒤동산마루에 뻐꾹새 울어
어서들 가자 우리를 부르네
한바늘 두바늘 지은 군복은
유격대동무들 갑옷이 되리
아 보내세 어서 보내세
우리들의 정성 담긴
유격대군복을 어서 보내세

원쑤들의 총칼이 우리 앞길 막아도

압박과 착취에 권리없던 우리 녀성
한마음한뜻으로 싸워나가자
(후렴)

우리들이 믿을건 우리의 힘뿐

우리의 녀성들은 나라의 절반
한데 뭉쳐 일어나 싸워나가자
녀성들도 모두다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원쑤도 이겨낸다오

혁명위한 한길로 나가게 하자요

사람속을 아무리 모른다 해도
타고난 본바탕은 변할리가 없어요
사람들을 모두다 깨우쳐주어
혁명위한 한길로 나가게 하자요

광복의 새날에 다시 만나리

총잡은 네 모습 언제나 그리며
군세게 싸우자 맹세한 어머니
혁명의 한길에서 싸우는 아들을
광복의 새날에 다시 만나리

사랑하는 을남이는 어데로 갔나

약 한첩 미음 한술 대접 못하니
내 마음은 한없이 괴로웁구나
앓고계신 어머니가 기다리는데
을남이는 어델 가서 오지 않느냐

판가리싸움에 일어나라

정의의 싸움에 일어나라
철천지원쑤를 쳐부시자
혁명의 붉은기 들고서
판가리싸움에 나가자
(후렴)

혁명만이 살길이다

폭넓은 서정과 기백을 가지고 (♩=90)
이 가슴 에— 새 겨진 —슬픈—사 연— 을
어 —이다 말하리—오 —원 한—의 세— 상
참 —혹 한 피바다 에 남 편을—잃— 고
막내아들 원 쑤 에—게 —무 참히 빼 앗기였
(후렴)
소 아 ——— 억눌린인민 들
아 — 혁 명 만이 —살 길 이다
—총들고결사전에 로 —총 들 고 결 사 전에 로

유격대가 앞길을 헤쳐나가고
우리모두 혁명전에 떨쳐나설 때
피에 잠긴 조국땅에 자유의 기 날리고
광복의 새아침은 밝아오리라
（후렴）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중에서

해마다 봄이 오면

산에도 들에도 꽃은 피건만
이내 가슴속에는 설음뿐이네
아름다운 꽃송이를 안고가건만
마음속엔 방울방울 이슬 맺혔네

눈물속에 꽃을 파는 어여쁜 처녀
송이송이 슬픈 사연 안고간다네
아름다운 꽃송이도 이슬에 젖어
깊고깊은 그 사연을 말해주는가

들어보자 그 이야기 눈물의 사연
어이하여 처녀는 꽃을 파는가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

그리운 오빠를 생각하면서
아침저녁 정성다해 가꾸어왔네
머나먼 감옥에서 고향 그리며
오빠도 우리를 생각하겠지

눈물의 매돌소리 처량하구나

이 몸이 돌이 되여 굳어진대도
내 어이 딸자식을 머슴시키랴
이 어미는 온갖 천대 다 받는대도
머슴 사는 딸의 모습 그 어이 보리

세월아 돌아라 매돌 돌듯이

세월아 돌아라 매돌 돌듯이
빙빙빙 어서 돌아 빨리 가거라
천대속에 깊어가는 원한의 이밤
언제 가면 머슴살이 끝이 나려나

꽃보다도 네 마음이 더욱 곱구나

꽃으로는 못 산다고 하였지마는
꽃보다도 네 마음이 더욱 곱구나
나에게는 도울 길 달리 없으니
이 약이나 가져다 달여드려라

꽃으로는 못 산다고 하였지마는
꽃보다도 네 마음이 더욱 곱구나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
땅우에서 보는 사람 서로 달라라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서러워한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기울지 말아
네가 지면 이내 몸은 어이될거냐
나 혼자면 이 몸 던져 죽기도 하고
머나멀리 어디론가 없어지련만

앓고계신 어머니는 어떻게 되며
불쌍한 눈먼 동생 어떻게 되랴

리별의 시각은 다가오는데

내 눈물에 가리워 보이지 않나
저 하늘의 새별도 사라졌구나
리별의 시각은 다가오는데
끌려가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랴

숲속에 우는 새야 재촉을 말아
날 밝으면 이내 몸은 끌리여간다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

아침이면 걱정에 잠을 깨시고
저녁이면 근심에 잠 못드시던
어머니 어머니 어데 갔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
아직도 딸의 정성 모자랐는가
원한의 이 세상 야속한 사연
그 누가 사람들께 말하여주랴

뜨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리

어머니 없는 집에 너 홀로 남아
언니를 생각하며 슬피 울겠지
한밤중에 잠이 깨여 내가 없을 때
네 마음은 그 얼마나 슬프겠느냐

궂은비 내리여도 눈보라쳐도
뜨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리
먼곳에서 바람소리 들리여오면
이 언니 너 찾는줄 알아주려마

떠나가는 마음이나 남는 그 마음
언니 동생 모두다 피눈물지네

고향떠나 칠백리

좀 느리게 (♩=69)
고향떠나 —칠 백—리 —낯설—은 길— 을
강건—너 —령을넘어 —외로—이 갈— 때
그 누—가 —알아주랴 —고달—픈—신— 세
구 름 —도 —끝이없이 —흘러—만 가— 네
걸음걸음 —피 눈—물 —뿌리 —여 —가— 며
타향산천 —낯선 길을 —가고—또 가— 네

길가의 꽃송이도 눈물에 젖고
날아가는 산새도 낯이 설구나
앞에서는 오빠생각 재촉을 하고
뒤에서는 동생생각 발목을 감네

돌아보니 고향산천 아득도 하고
앞을 보니 갈길 또한 아득하구나
해는 지고 새들도 깃을 찾는데
오늘 밤은 그 어느 길섶에 자랴

걸음걸음 피눈물 뿌리여가며
타향산천 낯선 길을 가고 또 가네

언니를 기다리며 울고 서있네

오늘도 언니는 안 오시나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시나요
먼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는
언니가 나를 찾는 소리인가요

험난한 풍파 넘어 다시 만나네

달 밝으면 달이 밝아 더욱 그립고
눈내리면 눈이 내려 보고싶었네
천리타향 낯선 길을 헤매일 때에
한시인들 잊었으랴 정든 나의 집

사랑하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오늘의 이 기쁨을 같이 나누리

혁명의 한길로 달려나가리

죄악의 이 세상 뒤집어엎고
인민의 새세상 마련해가자
삼천리 내 조국에 꽃을 피우려
혁명의 한길로 달려나가자
아 달려나가자
혁명의 한길로 달려나가자

혁명의 꽃씨앗을 뿌려간다네

mf
A
F♯7
Bm
B
E
은혜로 운 태—양 이 빛을뿌 리 니
Bm
B7
E7
A
혁—명 의 붉은꽃 이 만 발해가 네
ff
A
Bm7/D
C♯
삼—천 리 금수강 산 내조국—땅— 에
F♯m
Bm
E
A
활—짝 필 꽃씨앗 을 뿌 려간다 네 —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각색한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중에서

꼭 맞네

꼭 맞네 꼭 맞네 오빠 사온 고무신
생일날 명절날 기쁠 때만 신을래
부자집아이들 꽃신보다 좋아요
처음 신는 고무신 정말정말 좋아요

꽃피는 이 봄날에

봄날에는 우리 함께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우리 함께 열매 거두리
아 우리 서로 일해가면
눈물어린 땅우에도 기쁨은 오리

아 모진 바람 불어와도
우리는 헤여질 일 다시 없으리

총창을 들어라

총창을 들어라 용감히 일어나 싸우자
싸움의 불길로 압제의 쇠사슬 끊으리
족쳐라 원쑤를 무찔러라 원쑤를
쓰러진 동포의 사무친 원한을 풀자

혁명군 따라서 싸워나가자

들어도 죽는것이 자위단이고
안 들어도 죽는것이 험악한 세상
원쑤의 총칼에 죽기보다는
복수의 싸움에 떨쳐나서자
우리의 갈길은 오직 한길뿐
혁명군 따라서 싸워나가자 싸워나가자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중에서

아름다운 그 이야기 길이 전하리

미제를 쳐부시는 싸움길에서
충성의 꽃을 피운 당의 참된 딸
당원은 어떻게 살아야 함을
빛나는 모범으로 보여주었네
아름다운 그 이야기 꽃을 피우며
오늘도 우리 가슴 불타게 하네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해
동무여 원쑤 미제 때려부시자
우박치는 적탄도 두렵지 않다
우리는 로동당원 오직 앞으로
수령님 만세를 높이 부르며
철천지원쑤 미제 쓸어버리자

고지에서 한걸음도 떠날수 없네

작사 김두일
작곡 도영섭

아 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간호원의 생각은 깊어만 가네

시내가 물결은 잔잔하여도
내 마음 한없이 설레이여라
아 당원들의 불타는 충성
내 심장에 영원히 간직하리라

아
내 심장에 영원히 간직하리라

장군님은 평생소원 풀어주셨네

군대누나 배워주신 장군님노래
아침저녁 부르며 학교 갈래요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사는
이보다 더 큰 행복 세상에 없단다
아
장군님을 길이길이 받들어가세

복수의 피가 끓어 참을수 없네

작사 김두일
작곡 도영섭

싸워도 함께 싸우고 가도 함께 가자요

동무들이 모두다 헤쳐간다면
후송임무 받은 나는 어찌하나요
태백산병동 찾아서
우리 함께 가자요 함께 가자요

당원들은 충성을 맹세다지네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여도
바위는 폭풍에도 흔들림없네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여
사나운 폭풍도 뚫고나가자
엄혹한 시련이 앞을 막아도
장군님께 충성을 바쳐싸우자

전사들은 한없이 행복합니다

적후의 깊고깊은 밀림속에도
따사로운 당의 해빛 비쳐옵니다
어머니당의 숨결 가슴에 안고
전사들은 굴함없이 나아갑니다
아 전사들은 굴함없이 나아갑니다

수령님 해빛따라 싸워갑니다

그리운 고향집 문앞에 온듯

태백산병동에 찾아가며는
우선 첫째 차렷담배 한대 피우세
엄격한 간호원이 달려나와서
대사:《병원에선 담배를 못 피워요.》
아이구 야단났네 못 피운다네

화선병동 창문가에 불빛흐르네

어디에 갔는가 태백산병동

아득한 저 산이 오대산일가
날개라도 있다면 날아가련만
어이하면 좋으랴 앓는 전우들
밀림속에 어둠만 깊어가누나

혁명의 신념은 굽힐수 없네

작사 최준경
작곡 설명순

절절하게 호소적으로 (♩= 108)

혁명의 길은 간고합니다

좀 느리고 다정하게 (♩=102)
작사 안호근
D
혁 명 은 시 련—많 고 간 고 합 니 다
G D E7 A
피 — 눈 물 거 두 고 싸 워 갑 시 다
D A
희 생 을 무 릅—쓰 고 나 아 갈 때 에
D Em A D
승 리 도 행 복 도 찾 아 옵 니 다

수령님품을 찾아갑니다

작사 최준경
작곡 허금종

보통속도로 무게있게 (♩=106)

군대와 인민은 하나로 뭉치여
사품치는 강물을 헤쳐갑니다
승리의 신심을 높이 지니고
수령님품을 찾아 우리 갑니다
아
수령님품을 찾아 우리 갑니다

수혈의 노래

작사 안호근
작곡 박병국

하늘에는 북두칠성 밝은빛을 뿌리고
숲속에 안개는 고요히 흐르네
성스러운 싸움에 목숨바쳐 달려나갈
혁명의 전우여 어서 일떠서시라

별들도 사랑의 빛을 뿌리네

작사 안호근
작곡 허금종

보통속도로 감정 풍부히 (♩=102)

혁명의 전우 위해 먼길 떠나는
간호원의 그 모습 가슴 뜨겁네
험한 길을 헤쳐가는 녀전사앞에
별이여 밝은 빛을 뿌리여다오

장군님의 밝은 해빛 펼쳐가리라

작사 리종률
작곡 허금종

보통속도로 감정 풍부히 (♩=106)

기쁨 절로 노래 절로 웃음도 절로

작사 김두일
작곡 설명순

심산속에 꽃이 피는 백도라질세
약초로도 좋지만 먹기도 좋아
산삼이 되려다가 못되였지만
촌수를 따진다면 팔촌은 되리

자애로운 어버이장군님 품이여

언제나 어데서나 충성을 다해
아버지장군님의 참된 딸이 되렵니다
기어이 당원의 영예를 지니고
승리의 광장에서 뵈오렵니다

아 자애로운 어버이장군님
일편단심 충성을 맹세합니다

장군님께 충성을 다하렵니다

작사 김두일
작곡 박왈빈

천대받던 로동자의 이 딸을 안아
당원으로 키워주신 어머니당의 품
고난속에 헤매일 때 앞길 밝히며
오늘의 행복에로 이끌어주었네

순간을 살아도 장군님 위하여
일생을 영원히 장군님 위하여
혁명의 전사로 충성다하며
오직 한길 당을 따라 싸우렵니다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승리에로 이끄는 조선로동당
그 품속에 안기는 높은 이 영예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가자

혁명의 전사로 충성다하며
오직 한길 당을 따라 싸워나가자

당원의 영예를 가슴에 안고

저 하늘에 반짝이는 밝은 별들은
언제봐도 아름다운 빛을 뿌리네
당원의 영예를 가슴에 안고
이 한몸도 저 별처럼 빛을 뿌리리

충성의 한길로 우리는 왔네

작사 최준경
작곡 유명천

험한 산 깊은 강을 함께 넘으며
걸음마다 우정은 깊어졌다네
한마음 장군님의 품을 찾아서
충성의 한길로 우리는 왔네

승리의 새봄을 수놓아가네

소생한 동무 기쁨에 넘쳐
싸움터 찾아 또다시 가네
우리의 정성 꽃으로 피여
승리의 새봄을 수놓아가네
(후렴)

어데 가나 잊지 말자 우리의 우정

어데 가나 잊지 못할 전우들이여
승리의 광장에서 다시 만나자
미제를 쳐부신 자랑을 안고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리자
아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리자

간호원의 붉은 정성

작사 리종률
작곡 설명순
밝고 아름답게 (♩=92)
이 른 새 벽 숲 ㅡ 속 에 실 안 개
감 ── 돌 고 정 ㅡ 성 의 구 ㅡ 슬
땀 이 슬 로 빛 ㅡ 나 ㅡ 네 ㅡ 발
걸 ㅡ 음 떼 여주 는 간 호 원 의 그 ㅡ 마
음 어 머 니 의 사 랑 인 가 가 ㅡ 슴
뜨 ㅡ 겁 ㅡ 네 ㅡ 아 ────

저 멀리 고지우에 먼동이 밝아오고
붉은 정성 노을처럼 곱게 피여나네
한걸음두걸음 새아침을 향하여
전우의 발걸음을 이끌어주네

아
전우의 발걸음을 이끌어주네

승리의 그날이 다가온다네

간호원의 노래

별들이 반짝이는 깊은 밤에도
정성다해 간호한 보람이 있어
완쾌한 전사동무 총을 메고서
또다시 싸움터로 떠나간다네
아 우리의 가슴 설레인다오
간호원의 자랑은 끝이 없다오

혁명동지 그 사랑 잊지 않으리

작사 리종률
작곡 박왈빈

보통속도로 감정 풍부히 (♪=108)

수령님품속에서 영생하리라

대를 이어 수령님께 충성다하자

녀전사는 우리곁을 떠나갔어도
그 념원은 조국땅에 꽃펴나리라
그가 걸은 충성의 한길을 따라
수백만 영웅대오 나아간다네
전우의 피맺힌 원한 씻으려
복수의 총창들고 싸워나가자

대를 이어 수령님께 충성 다바쳐
승리의 한길로 달려나가자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 중에서

아 밀림이 설레인다

설레이는 밀림아 이야기하라

홀로 핀 진달래

다정하던 동무들도 이제는 나를 버리고
살뜰하던 이웃들은 만나서도 말 안하네
(후렴)

일편단심 혁명임무 다하는 길에

꽃 늪 가

호수엔 꽃물결이 넘쳐나는데
가슴엔 깊은 시름 고여만 가네
산천은 아름답기 그지없건만
처녀는 어이하여 눈물 흘리나

목숨보다 귀중한 조직의 비밀

천백번 죽는대도 싸워가리라

장군님의 품에 안길 그날이 그립네

반갑게 만나는 혁명동지들

마음은 언제나 장군님곁에

적후에서 싸우는 혁명동지를
장군님은 언제나 생각하시네
따사로운 그 사랑 그 품속에서
어데서나 전사들 희망 넘치네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된 우리
이보다 더 큰 행복 다시 없어라

그 언제나 그리는 마음의 별빛

오직 한길 장군님께 충성다하리

혁명위해 싸우는 길 순탄만 하랴

조직의 비밀은 혁명의 생명

어머니를 여의고서 외로이 살며
그 얼마나 많은 눈물 흘리였느냐
모진 수모 모진 천대 다 받으면서
어이하여 딸에게도 말 안했나요

조직의 비밀은 혁명의 생명
딸에게도 꿈결에도 말할수 없었네

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죽어도 영광이라네

빼앗긴 내 조국을 찾기 위하여
혁명의 준엄한 길 함께 나서자
대를 이어 일편단심 충성다하며
장군님의 전사로 싸워나가리

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그 길에선 죽음도 영광이라네
앉아서 편안하게 혁명을 하랴
아버지도 딸자식도 집을 떠나네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중에서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조선의 슬기론 기상을 안고
만이천 봉우리 높이 솟았네
온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금강산을 노래하며 우리 산다네
(후렴)

달빛밝은 이밤에

밝은 달을 보아도 그리운 생각
목란꽃을 보아도 간절한 마음
어린시절 피눈물로 헤여진 아버지
그 어디에 계시는지 알길이 없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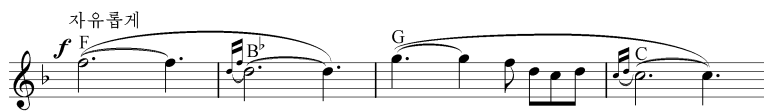
달빛어린 꽃나무 바라다보며
어머니는 지난날 더듬어가네
심심산골 초막집에 목란꽃 피던 날
어데론가 떠나간 남편을 생각하네

금강산의 목란꽃

아버지가 심어준
우리 집의 목란꽃
방실방실 웃지요
나를 보고 웃지요

금강산에 선녀들이 내린다 하지만

나라없는 슬픔에 쫓기는 이 몸
금강산도 빛을 잃고 설레이누나
우리 아기 크게 자랄 그 앞날에는
슬픔도 괴로움도 사라지리라

이 땅에 새세상 밝아오며는
우리는 옛말하며 살아가리라

사회주의 이 강산 노래부르자

아침엔 붉은 해님 동해에 솟고
저녁엔 둥근달님 금강에 뜨네
사람들 일하며 서로 돕는
예가 바로 우리 사는 락원이라오
아
인민의 금강산 노래부르자

아
인민의 금강산 노래부르자

금강산의 노래

보통속도로 폭넓게 (♪=132)
작곡 김영도
아 — 위대하신우 리태— 양
그 이—름 도 빛 —나—는 김—일 성 원 —수 님
아 름다 운 이나 라—의 광 복 을 위 —하— 여
이 십성 상 눈보—라—를 — 헤 치 며 싸 우셨— 네
높 이솟 은 봉 이 들—도 구슬같은맑은물— 도
김 —일 성 원 수님—의 은—덕 을 노래하 네

자애로운 어버이 그 품이 아니면

자애론 어버이 그 품에 안기여
세상에 부럼없이 자란 순이야
수령님 그 은덕 잊지를 말고
어델 가나 충성으로 보답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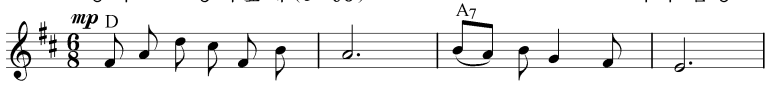
천년만년 흐른다고 그 사랑 잊으랴
하늘땅이 변한다고 그 은덕 잊으랴

아름다운 금강산의 노래를 안고

동해천리 풍랑속에 자라난 이 몸
청춘의 희망을 노래하리라
우리 서로 로동속에 맺어진 우정
사회주의락원속에 꽃피워가리

목란꽃의 노래

보통속도로 정서깊게 (♪=96)
작곡 김영도
mp
D
A7
목 란 꽃 송 이 송 이 피 — 고 피 였 네
D
G
p A7
D
수 — 령 님 해 빛 아 래 곱 — 게 피 — 였 네
mf D
F♯7
G
A/E
E7
A
다 함 —없 는 감 — 사 의 정 을 담 아 — 서
D
G
A7
D
금 — 강 산 봉 이 마 다 활 — 짝 피 — 였 네
f D
F♯7
G
A/E
E7
A
아 —— 목 — 란 꽃 조 선 의 꽃 이 — 여
D
G
A7
D
사회주 의 이 강 산 에 만 — 발 하 — 여 라

목란꽃향기를 함뿍 안고서
아름다운 금강산을 노래하리라
수령님의 그 사랑 길이 전하며
사회주의락원속에 우리 살리라

지난날 비바람 눈보라속에
필래야 필수 없던 금강의 목란
이 강산에 넘치는 해빛아래서
송이송이 천만송이 피여난다네

아 목란꽃 조선의 꽃이여
사회주의 이 강산에 만발하여라

달빛어린 바다가 백사장에서

목란꽃나무아래 피리 부시던
그날의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오늘의 우리 행복 노래할수록
아버지가 그리워 울었습니다

목란꽃 노래속에 담긴 그 사연
순이의 심정을 나는 몰랐네
설음많던 그 세월 잊지 말고서
우리의 이 행복을 꽃펴가자요

금강의 목란꽃 활짝 피여라
수령님품에서 만발하여라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그대로 옮긴
예술영화 《피바다》중에서

광복의 새날 안고 돌아오너라

사랑하는 어머니 부디 안녕히
굳세게 그날까지 싸워주세요
장군님의 뒤를 따라 내 나라를 다시 찾고
붉은 기발 휘날리며 돌아오리다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모진 세월 모진 고생 가시덤불 헤치고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언제나 그 어디서나
혁명절개 고이 지켜 싸우렵니다

비바람과 눈보라가 우리 앞길 막아도
굴함없이 혁명의 길 걸어갑니다
저 멀리 구름너머
붉은 서광 아름답게 비껴옵니다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저 하늘에 구름이 가시여지고
들판에는 꽃들이 피여나는 날
자유기발 날리는 독립의 아침
우리 엄마 노래를 부르겠대요
(후렴)

어머니는 굴함없이 싸워갑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중에서

꽃과 같이 피여난 정성

진달래꽃 송이송이 꽃잎마다 스민 정성
꽃보다도 아름답게 가슴속에 피여났네
아 송이송이 가슴속에 피여났네

귀항의 노래

예술영화 《〈갈매기〉호 청년들》중에서

저 멀리 잔교우에 빛나는 신호등은
어서 오라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네
높뛰는 가슴에 울리는 고동소리
싸워넘은 풍파를 이야기하네
(후렴)

전사의 길

예술영화 《고향으로 온 련대장》 중에서

작사 전동우
작곡 우정희

하나의 행복 찾아 머나먼 길 왔던가
명예를 바라고서 이 길따라 왔던가
높은 령 넘었다 멈춰서지 말라
전사가 가는 길 후회가 없다네

천리길 끝난 곳에 만리길 또 있어라
가고가다 쓰러져도 영예로운 길이여
내 못다 가며는 대를 이어서
영원히 가리라 우리 당따라

이 땅엔 고요가 없다

예술영화 《고요한 전방》 중에서

작사 리명수
작곡 려철룡

이 땅에 웃음 높다고 안식을 찾지를 말아
총대가 녹이 쓸면 그 웃음 잃게 되리라
싸움 싸움 싸움을 위하여 장군님병사들아
언제나 만장탄하고 정의의 칼을 벼리자

준엄한 나날속에 백년이 흐른다 하여도
탕개를 풀지 말아 승패는 한순간이다
승리 승리 승리를 위하여 장군님병사들아
언제나 만장탄하고 정의의 칼을 벼리자

그 품은 하나

예술영화 《곡절많은 운명》 중에서

보통속도로 그리운 감정으로

작사, 작곡 고수영

눈비가 오면 막아주고
품에 안아 키워주는
이 세상에 다시없는
다시없는 그 품
어머니당의 품
(후렴)

오늘의 삶도 그 품속에
그 품속에 꽃피우리
래일의 꿈도 그 품속에
그 품에 꽃피우리
어머니당의 품
(후렴)

군기와 함께

예술영화 《군기》 중에서

작사 주기철
작곡 라 국

빠르지 않고 서정적으로

시련의 길 군기와 함께
영광의 길 군기와 함께
성스러운 기발 휘날려
전승의 광장에 가리라

조국위한 싸움길에서
병사의 영예는 빛나네
이 한길에 청춘을 바쳐
내 조국의 영광 떨치리

전사의 의리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중에서

그 어데서나 하나의 생각 그 사랑을 못 잊어
꿈속에서도 하나의 생각 그 믿음에 불타는 마음
(후렴)

세월이 가도 하나의 마음 향도의 별 우러러
대를 이어도 하나의 마음 당과 함께 가고가리라
(후렴)

나의 사랑 바쳐가리

예술영화 《그가 남긴 사진》 중에서

그 어디에 있으랴 나의 행복 있으랴
전호가의 우리 병사들 값높은 위훈에 있네
정을 주며 마음 합치고 사랑으로 한뜻이 되여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동지로 우리 산다네

그 어디에 남기랴 나의 모습 남기랴
사랑하는 우리 병사들 심장속에 남기리
병사들의 마음에 살고 동지들의 추억에 살아
장군님의 사랑의 품에 영원히 함께 있으리

조국은 내 삶의 전부

예술영화 《그들은 평범한 전사들이였다》 중에서

조국은 선렬들의 붉은 피 스민 땅
조국은 목숨바쳐 지키는 나의 고지
내 너를 빼앗기고 또다시 노예되랴
아 귀중한 조국은 내 삶의 전부여라

조국은 심장으로 지키는 우리 기발
조국은 승리로 찬란한 우리 미래
천만년 번영해갈 영원한 삶의 요람
아 귀중한 공화국은 장군님품이여라

사과풍년

예술영화 《금강산처녀》 중에서

작사 백인준
작곡 김영도

가지마다 주렁진 사과를 따서
향기도 그대로 담아보내니
아득한 수만리 먼바다에서
조국의 향기를 맡아보세요
사과풍년 배풍년 과일풍년은
북청회의 뜻깊은 열매이라오

봄 가을 여름내 가꾼 사과를
정성도 그대로 담아보내니
늙은이 어린이 온 집안식구
아침저녁 끼마다 잡숴주세요
사과풍년 대풍년 마음도 풍년
온 나라에 행복이 꽃피여가요

노래하자 금강산

예술영화 《금강산처녀》 중에서

천리마가 나래펴고 창조로 꽃피는 땅
사회주의락원속에 산천도 아름답네
밝고밝은 태양을 머리우에 이고서
1만2천봉이마다 자랑높이 솟았네
아 노래하자 금강산을
노래하자 아름다운 우리의 조국을

아름다운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하여
20성상 눈보라를 헤치며 싸우셨네
높이 솟은 봉우리도 구슬같은 맑은 물도
김일성원수님의 은덕을 노래하네
아 아름다운 금강산아
천년만년 전해가자 은혜로운 그 이름을

우리의 평양

예술영화 《금강산처녀》 중에서

수령님 계시는 혁명의 수도
여기서 모든 행복 마련해가네
온 세상이 노래하는 주체의 태양
그 빛발 여기서 비치여가네
아 우리의 평양
사회주의 붉은 수도 번영하여라

아버지의 축복

예술영화 《금희와 은희의 운명》 중에서

밤이 새고 아침해 솟아오를 때
네 얼굴에 해빛이 밝게 비치리
어서어서 자라서 곱게 자라서
온 세상에 웃음을 꽃피워주렴

기다려다오

예술영화 《기다려다오》 중에서

작사 전창준
작곡 서정건

원쑤 치고 나라찾을 굳은 그 맹세
은빛처럼 금빛처럼 변치를 말자
(후렴)

오산덕에 백살구꽃 만발할 때에
장군님을 모시고서 우리 가리라
(후렴)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당이여

예술영화 《길》 중에서

말 못하는 괴로움도 남먼저 알고
가슴속에 숨긴 뜻도 헤아려주네
그 사랑 그다지 깊은줄 내 미처 몰랐네

아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당이여

나의 사랑 나의 행복

예술영화 《나의 행복》 중에서

행복의 뿌리는 어데서 억세게 내렸는가
금잔디 푸르른 고향길언덕에 내렸는가
잊지 못할 전우들속에 기쁨과 슬픔 나누며
결전의 노래를 부르던 전호가에 내렸네

사랑은 이 가슴 태우는 열정의 불길인가
못 잊을 추억을 부르는 심장의 노래인가
기쁠 때도 나의 사랑 슬퍼도 나의 그 행복
조국이 부르는 길에서 운명을 함께 했네

따사론 해빛은 내 사랑 내 행복 지켜주고
은혜론 별빛은 언제나 앞길을 밝혀주네
생사운명 같이하여온 그 품에 나는 한 전사
한생을 끝까지 따르리 영원한 내 삶의 품

나의 군복은 말해주네

예술영화 《녀성중대장》 중에서

작사 김석천
작곡 김 혁

인생길을 가는 사람마다 바라는 행복이 있어
그 소원을 안고 한생토록 먼길을 가고가지
그러나 그 행복보다 조국이 귀중함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었네 나의 군복이

총과 함께 걸은 복무의 길에 사랑도 행복도 있어
후회없이 가리 끝까지 가리 성스런 이 길을
장군님병사로 사는 값높은 그 영예를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었네 나의 군복이

수차야 돌아라

예술영화 《농민영웅》 중에서

저 하늘엔 별도 많고 이 가슴엔 꿈도 많네
기쁨 싣고 희망 싣고
돌아라 수차야 돌아라 빙빙 돌아라

장군님이 주신 땅을 옥토벌로 가꿔가세
이 행복을 노래하며
돌아라 수차야 돌아라 빙빙 돌아라

빛나는 청춘으로 나는 살리

예술영화 《내가 설 자리》 중에서

이 땅에 넘치는 행복을 지켜
별처럼 위훈을 새기여가리
사나운 풍랑도 웃으며 헤치는 이 길에
참다운 삶의 자욱 나는 남기리

흘러간 청춘은 다시 못 와도
값높이 바친 생 영원하다네
이 몸을 전사로 키워준 우리 당 품속에
빛나는 청춘으로 나는 살리라

우리 다시 만나자 더 높은 곳에서

예술영화 《더 높은 곳으로》 중에서

잘있거라 정다운 나의 동무야
그 언제나 잊지 말자 우리의 사랑
동무야 빛나는 위훈을 안고
우리 다시 만나자 높은 곳에서

내 고향의 메아리

예술영화 《도라지꽃》 중에서

작사 최희건
작곡 황진영

좀 빠르게 랑만적으로

푸른 하늘 저 멀리 울려가는 메아리 메아리
내 고향에 넘치는 영원한 행복의 노래소리
(후렴)

심산에 피는 꽃

예술영화 《도라지꽃》 중에서

심산에 남몰래 뿌리 내린 꽃
그 누가 보라고 애써 피던가
눈서리 날리는 내 고향에 새봄을 안아오려
억세게 피여난줄 알아주려마

심산에 남몰래 피여있는 꽃
그 누가 보라고 곱게 폈던가
락원이 솟아난 내 고향의 행복을 노래하려
웃으며 피여난줄 알아주려마

목숨바쳐 지키리 조국의 명령

예술영화 《돌아설수 없다》 중에서

적탄알이 비발쳐도 돌아서지 않으리라
군기앞에 다진 맹세 그 언제나 잊지 않았네
명령 명령 목숨바쳐 지켜가리라 조국의 명령

세찬 파도 헤쳐나가며 병사들은 용맹 떨치네
가슴속에 불타는 충성 이 한길에 바쳐가리라
명령 명령 위훈으로 빛내가리라 조국의 명령

동지의 사랑

예술영화 《동지》 중에서

작사 김정훈
작곡 김영철

보통속도로 뜨겁게

사랑은 그 사랑은 심장의 부름인가
생사를 함께 할 불타는 맹세인가
누구도 뺏지 못할 귀중한 그 사랑은
장군님 배워주신 동지의 노래라네

의리와 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천만이 하나로 심장을 합치였네
장군님전사되여 붉은기 지켜가는
동지의 사랑이여 영원한 사랑이여

우리의 병사시절

예술영화 《동지》 중에서

작사 오형식
작곡 김영철

얼마나 좋은가 화목한 가정
그 품에 우리 서로 동지라 부르네
라 병사시절은
심장과 심장이 합치는 시절

추억의 갈피에 그 시절 없다면
값높은 한생이라 그 어이 말하랴
라 병사시절은
장군님 받드는 총폭탄시절

우리의 인민군대 노래부르자

예술영화 《두 작업반장과 두 전사》 중에서

전사들이 온대요 우리 마을 찾아온대요
꽃피는 농장소식 들으러 찾아온대요
기계화로 풍년든 소식도 좋지만
백발백중 명사수된 자랑도 좋아
아 우리도 일당백 원쑤가 덤벼들면
우리도 전사 우리도 전사

병사의 노래

예술영화 《대덕산》 중에서

작사 주기철
작곡 황진영

불비를 헤치던 그날에 피로 쓴 충성의 맹세
이 땅을 지켜선 청춘의 심장을 뛰게 한다
(후렴)

내 고향의 이깔나무야

예술영화 《대홍단책임비서》 중에서

죽어도 서있는 이깔나무 백두의 나무야
천년세월 흘러도 대바르게 서있는 나무야
가을 가고 봄 가고 겨울 와도 그 한모습 변치 않는
일편단심 너의 기개 이 마음 울려주네

억세게 서있는 이깔나무 성지의 나무야
요람 지켜 오늘도 변함없이 서있는 나무야
구름 끼고 눈바람 사정없이 너의 넋을 위협해도
창공높이 서있으리 영원히 설레이리

병사로 한생을 바치리

예술영화 《려단장의 옛 상관》 중에서

작사 리성일
작곡 한시준

궁지를 가지고

심산속 전호가에 비바람 세차도
병사의 가슴엔 보람 넘치네
안겨사는 그 품 어머니당을 위해
내 조국방선의 조약돌되리라

락동강기슭에 고향은 없어도
꿈엔들 잊으랴 남녘의 형제
내 운명을 맡긴 어머니당을 따라
통일의 광장에 축포성 울리리

수령님 다녀가신 산정길

예술영화 《로동가정》 중에서

구름도 감도는 산정길에서
백두의 련봉이 바라보이네
광복의 뜻이 어린 산발마다에
은금보화 가득차 빛을 뿌리네
(후렴)

오늘도 혁신으로 계획 넘치고
천리마기수의 영예 떨치네
수령님 가리키신 이 길을 따라
공산주의 래일을 앞당겨가네
(후렴)

기어이 내 조국 지키여가리

예술영화 《마을을 지켜싸운 인민무장대》 중에서

찬란히 빛나는 별빛이런가
장군님 심어주신 혁명의 불씨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빛나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네
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네

지척에 두고온 정든 고향아
승리의 그날을 기다려다오
미제를 모조리 쓸어버리고
기어이 내 조국을 지키여가리
아 기어이 내 조국을 지키여가리

노을아 너처럼 살리

예술영화 《먼산의 노을》 중에서

작사 한창우
작곡 배용삼

청춘의 꿈을 실은 노을을 보니
나의 초소 지켜가는 이 마음 불타네
노을아 너는 내 열정 병사는 먼곳에 있어도
최고사령부 한뜨락에 안기여사네

외진 초소에 비껴오는 노을을 보니
사무치게 그리운 장군님모습
노을아 너는 내 희망 병사는 먼곳에 있어도
최고사령부 한뜨락에 안기여사네

이 땅우에 아름답게 펼쳐진 노을
장군님은 기쁨속에 바라보시리
노을아 너처럼 살리 태양을 받들어 불타는
선군의 노을로 내 한생 빛내리

선군길에 찾은 행복

예술영화 《먼산의 노을》 중에서

험한 령 막아선다 그 어이 헤여지랴
뜻과 정 하나이면 한길에서 만나네
총대와 우리 서로 운명을 함께 하니
그 길에서 찾은 행복 한없이 소중해라

초소에 꽃피운 뜨거운 우리 사랑
이보다 값높은 삶 그 어데 또 있으랴
장군님 선군길을 따르는 우리 한생
락이 오고 복이 오는 행복한 생이여라

조국은 우리를 제일 사랑해

예술영화 《먼 후날의 나의 모습》 중에서

꿈많은 동무여 어데로 달려갈가
끝없이 번영할 찬란한 미래이지
(후렴)

열정의 동무여 위훈은 어데 있나
당의 뜻 꽃피는 값높은 미래이지
(후렴)

어머니조국에 기쁨을 더해주리

예술영화 《먼 후날의 나의 모습》 중에서

작사 주정웅
작곡 고수영

보통속도로 뜨거운 사색을 안고

누구도 대신 못할 내 삶의 한길에
자욱마다 꽃을 피워 그 향기 남기리
인생의 먼길우에 금별을 수놓으라
어머니목소리 가슴에 안고사네

두번다시 오지 않는 한생의 나날을
소중하게 가꾸자고 간직한 이 마음
인생의 먼길우에 금별을 수놓으라
어머니목소리 오늘도 들려오네

먼 후날 자서전에 오늘을 적을 때
량심에 후회없을 그 길만 걸으리
인생의 먼길우에 금별을 수놓으며
어머니조국에 기쁨을 더해주리

아 장군님품

예술영화 《명줄》 중에서

작사 전동우
작곡 배용삼

정을 지켜 뜻을 지켜 의리를 지켜서
전사의 한생은 성스러워라
못 잊어 못 잊어 피가 터지게
부르는 님의 이름
부르며 부르며 내가 안길
아 장군님품

의리에 사는 생은 영생이 따르고
의리를 버린 생은 살아도 죽음
그리워 그리워 세상끝까지
부르는 님의 이름
천년을 만년을 안겨살리
아 장군님품

백두산을 향해 가는 길

예술영화 《미래를 꽃피운 사랑》 중에서

영광의 기발 앞에 날리고
노래소리는 높아라
미래를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장군님따라 나간다
금수강산 내 조국땅우에
백화만발하리라
미래를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장군님따라 나간다

장군님식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로동계급편)중에서

고향은 다르지만 뜻이 같아 뜻에 살고
떠난 곳 어디여도 정에 끌려 정에 사네
흘러서 흘러 모여서 모여 형제같은 너와 나는
아 한집안식솔 장군님식솔

시내물 흘러오며 흐려질수 있어도
바다에 안기면 하나되여 푸른빛
민족의 운명 한몸에 안은 그 품속에 너와 나는
아 한집안식솔 장군님식솔

품은 정 식지 않게 걸음걸음 덥혀주고
지닌 뜻 변치 않게 깨우치며 보살피네
내리는 사랑 눈물로 안고 참된 도리 다해가는
아 장군님식솔 장군님민족

반만년 오랜 세월 살아오던 우리 민족
수령님품에 안겨 한식솔이 되였어라
인덕의 해님 밝은 빛아래 한피줄을 이어받은
아 장군님민족 **김일성**민족

언제 만나랴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리정모편)중에서

진달래노래를 엮어 당신은 보내줬지요
철창도 두려움없이 조국을 노래했지요
(후렴)

꽃방석 정히 펴놓고 당신을 맞고싶어요
온 나라 축복속에서 행복의 봄을 찾으리
(후렴)

조국이여 받아다오 나의 사랑을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로동계급편)중에서

작사 전동우
너무 느리지 않게 사색적으로 절절하게 작곡 고수영

초불처럼 초불처럼 한몸을 태워버려도
내 나라에 바친 삶은 그 삶은 행복이여라
한몸은 사라져도 한줄기 빛을 주어
이 강산에 더하리라 사랑의 불빛

한번 맺어 한번 맺어 못 끊을 정분이지만
인생이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였어라
민족에 바쳐가는 그 사랑 없다며는
나의 인생 그 어디에 보람있으랴

번개처럼 번개처럼 왔다가 간다 하여도
내 조국에 보탠 삶은 그 삶은 아름다워라
순간을 살았어도 한점의 빛을 남겨
이 강산에 더하리라 사랑의 빛발

나의 보병총아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최현편)중에서

전호에서 지새이던 밤도 나와 함께 너는 있었지
이 병사의 심장을 불태운 나의 전우여 보병총아
장군님께 피로 다진 맹세 병사의 의리로 지켜가자

비발치는 탄우속을 헤쳐 우리 갈길 그 얼마냐
자폭정신 그 힘을 안겨준 나의 전우여 보병총아
위대하신 장군님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앞으로

나의 한생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최현편)중에서

작사 리춘구
작곡 배용삼

약간 느리고 절절하게

인생은 푸른 산 저너머 피여난 노을인가
눈보라 헤쳐온 그 시절 피로 새긴 흔적이리
혁명의 장로에 시련을 헤친 선렬들이 없다면
번영할 조국의 영원한 행복 우리에게 없으리라

인생은 아득한 저 멀리 혈전의 언덕 넘어
생사를 함께 한 그 시절 잊지 못할 추억이리
장군님 받들어 싸워온 그 길 영광넘친 행로우에
내 한생 안겨살 사랑의 그 품 어버이 그 품이여

땅과 나무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 중에서

이 땅이 얼마나 넓고넓은지
나무야 아느냐 정녕 아느냐
끝없이 끝없이 안아준 땅이 고마워
아지를 뻗었네 잎을 펼쳤네

아 고마운 나의 땅이여
정을 준 대지여 어머니당이여

사랑의 봄빛

예술영화 《민족의 태양》 중에서

작사 리혁수
작곡 황진영

내 삶의 참된 길 열어준 봄빛은
저 넓은 광야에서 비쳐왔던가
아 은혜론 장군님의 품에서
혁명의 봄은 왔네

찬서리 밟으며 먼길을 갈 때도
가슴에 안고 가는 사랑의 봄빛
아 은혜론 장군님의 품에서
희망의 봄은 왔네

위대한 태양

예술영화 《민족의 태양》 중에서

찬란한 주체의 홰불로 삼천리를 밝히시며
짓밟힌 인민의 심장에 진리를 심어주셨네
(후렴)

력사의 시련과 풍파를 한몸으로 막으시며
철쇄에 얽매인 겨레의 원한을 풀어주셨네
(후렴)

내 삶과 조국

예술영화 《번개와 우리》 중에서

이 땅이 없이도 살수 있다면
준엄한 이 길에 어이 나서랴
그 품이 없인 나도 없기에
목숨도 바쳐가는
조국은 내 사랑 내 운명

무궁한 세월에 인생은 순간
그러나 조국은 영원하여라
살아서 이 길 다시 못 와도
그대만 빛난다면
내 삶은 그 품에 영원해

병사들 훈련길을 가고 또 가네

예술영화 《병사들은 임무수행중에 있다》 중에서

깊은 강 진펄길도 험한 벼랑도
우리의 굳센 의지 꺾을수 없다네
아 번영할 조국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병사들 훈련길을 가고 또 가네

지나온 길우에는 위훈 많아도
병사의 발걸음은 멈출수 없다네
아 피끓는 가슴에 통일의 념원을 안고
병사들 훈련길을 가고 또 가네

보람찬 우리 일터

예술영화 《보람찬 나의 일터》 중에서

일터마다 혁신의 자랑은 넘쳐나고요
우리들의 가슴엔 기쁨이 넘쳐납니다
로동의 보람으로 꽃피워가는
즐거운 우리의 생활 그대로 노래랍니다

천리마로 달리는 사회주의 내 나라는
온 세상에 자랑높은 주체의 조국입니다
수령님의 높은 뜻을 가슴에 새겨
영원히 충성의 붉은 꽃 피우렵니다

그대밖에 내 몰라라

예술영화 《보증》 중에서

작사 전동우
작곡 서정건

느리고 절절하게

말 못하는 말 못하는 가슴속 아픔도
그대 먼저 그대 먼저 헤아려주었네
둘도 없는 나의 어머니 은혜론 당의 품이여
세상에 그대밖에 믿고살 품 없어라

바람처럼 바람처럼 이 몸은 흩어져도
천번다시 만번다시 돌아와 안기리라
둘도 없는 나의 어머니 위대한 당의 품이여
이 몸 바쳐 그대 품에 나는 영생하리라

류벌공의 이 영예 끝이 없어라

예술영화 《북은 내가 치겠소》 중에서

작사 전동우
작곡 김영도

강물은 자랑찬 청춘의 일터
떼목은 보람찬 위훈의 무대
(후렴)

청춘의 희망을 떼목에 싣고
찬란한 래일에로 달리여가네
(후렴)

이 나무 흘러가서 기적을 낳고
이 나무 가는 곳에 웃음꽃피네
(후렴)

들끓는 건설장엔 기둥이 되고
행복한 살림에는 기쁨을 주네
(후렴)

정다운 초원이 나는야 좋아

예술영화 《북은 내가 치겠소》 중에서

구름너머 벌방에 찾아가볼가
아니아니 초원이 나는야 좋아
아 어데나 양떼가 넘쳐나는
정다운 산촌이 나는야 좋아

초원에 꽃들은 피고지지만
이 가슴에 붉은 꽃 언제나 피네
아 수령님 따사론 해빛 안고
정다운 산촌에 나는 살리라

아 수령님 따사론 해빛 안고
정다운 산촌에 나는 살리라

사회주의락원일세

예술영화 《붉은 선동원》 중에서

천년을 만년을 번영할 내 나라
인민들의 념원이 아름답게 꽃피네
사람마다 화목하고 서로서로 이끌어나가니
(후렴)

전사의 념원

예술영화 《백두산》 중에서

그리운 그 품을 멀리 떠나
준엄한 세월은 흐르네
전사는 언제나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며 싸우네
장군님 안녕하신가
머나먼 그곳 우러러
전선에서 전사는
오늘도 안녕을 바라네

시련의 폭풍이 몰아쳐도
전사는 언제나 한마음
장군님 모시고 싸워가는
그 영광 가슴에 넘치네
장군님 안녕하시라
혁명의 승리 위하여
천만의 념원은
어제도 오늘도 하나뿐

영원한 나의 전우

예술영화 《사랑과 위훈》 중에서

작사 김석천
작곡 허준모

보통속도로 따뜻이

전우의 사랑이 그 무엇인지 불비를 헤치며 우리 알았지
그 사랑 병사의 위훈을 낳고 혈육의 정을 주었네
아 동지여 피를 나눈 혁명의 전우
영원한 나의 전우

그대와 손 잡고 가는 길이면 준엄한 시련도 두렵지 않아
장군님전사로 싸우는 길에 한마음 변함없으리
아 장군님 그 품속에 우린 한전사
영원한 나의 전우

장군님을 그리는 마음

예술영화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 중에서

작사 백인준
작곡 한시준

창문밖엔 눈보라 휘몰아쳐도
가슴엔 봄빛을 담뿍 안았네
장군님의 품속에 꽃피여날
조국의 새봄을 그리여보네

사랑하는 조국산천 어머니품아

예술영화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 중에서

짓밟히고 눈물젖은 조국산천아
너를 위해 총을 잡고 우리 왔노라
아름다운 이 땅우에 장군님을 모시고
광복의 새봄을 꽃피우리라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

예술영화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 중에서

천고의 밀림에 저녁해 지고 밤은 깊어가는데
저 하늘 멀리 바라다보니 별빛도 아득해라
아 장군님 계신 곳 그 어데인가
시련의 이밤 전사의 마음 간절하여라

찬바람소리는 철창을 넘어 잠든 몸을 깨운다
장군님 찾아 다시 돌아갈 그날은 언제이랴
혁명의 사령부 지키여 싸우는 길에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 굴함없어라

동무여 잊지 말자

예술영화 《사회주의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 중에서

동무여 잊지 말자 혁명의 굳은 맹세
붉은 심장 고동치는 마음은 하나
언제나 어데서나 변함없으리
조국에 다진 맹세 변함없으리

끝없는 이 행복 노래부르네

예술영화 《사회주의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 중에서

세월이 갈수록 내 가슴속에
다함없는 고마움 흘러넘치네
어버이원수님의 사랑속에서
보람찬 청춘을 꽃피워가네

위대한 수령님이 마련해주신
사회주의락원속에 행복은 끝없어라

수령님 바라시는 오직 한길에

예술영화 《산정의 수리개들》 중에서

작사 전동우
작곡 김영도

조국땅 떠나면 곳 어디를 가도
깊고깊은 산속의 어디를 가도
수령님 위하여 한몸 바치는
끝없는 행복속에 우리 살리라
아 끝없는 행복속에 우리 살리라

손 저으면 흰구름이 손끝에 닿고
발밑엔 산발이 흘러간다네
비바람 오고가는 철탑우에서
조국의 미래를 꽃펴간다네
아 조국의 미래를 꽃펴간다네

아늑한 보금자리 바라지 않네
화려한 꽃다발도 바라지 않네
우리가 하는 일 누가 몰라도
가슴속엔 크나큰 영예가 있네
아 가슴속엔 크나큰 영예가 있네

푸르른 하늘은 우리의 지붕
사나운 바람은 우리 길동무
산에도 높은 산에 자란 수리개
억세인 두날개 펼치고 가네
아 억세인 두날개 펼치고 가네

피끓는 가슴들에 높이 받들려
철탑은 아득히 뻗어만 가네
수령님 펼쳐주신 영광의 길에
충성의 한마음 영원하리라
아 충성의 한마음 영원하리라

조국땅 머나먼 곳 어디를 가도
깊고깊은 산속의 어디를 가도
수령님 안겨주신 고귀한 칭호
숨은 영웅 이 영예 빛내가리라
아 숨은 영웅 이 영예 빛내가리라

아 동지여

예술영화 《성새》 중에서

아 동지여 꿈에도 불러보네
그 품은 무엇이기에 떨어져선 못사느냐
동지의 그 품은 내 삶의 푸른 하늘
전사는 장군님품에 영생의 별이 되리

나의 별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 중에서

하늘엔 수억만개 별들이 있어도
나의 별은 하나뿐 그 별 하나뿐
비바람 몰아치며 아름다운 별
나의 별 나의 별을 가리웠구나
그러나 내 가슴에 한번 비쳐진
그 별빛 영원토록 나를 밝히리

세월은 흘러가고 봄가을 바뀌여도
그 언제나 빛난다 나의 그 별은
캄캄한 이 천지에 갈길 모를 때
나의 별 나의 별은 나를 밝힌다
북녘하늘 저 멀리 반짝이면서
내 가슴 가득히 빛을 뿌린다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리라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 중에서

작사 백인준
작곡 김찬범

장엄하게

사나이 이 세상에 한번 태여나
나 하나의 안락을 찾다가 말랴
누구냐 이 나라를 지켜나설자
일어나라 청춘들아 목숨을 걸고
감옥도 죽음도 두렵지 않다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리라

찢겨진 겨레의 피타는 소리
혈육의 부르짖음 남북에 찼다
누구냐 이 길을 막고나선자
일어나라 겨레들아 때는 왔고나
미제와 앞잡이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리라

소년빨찌산의 노래

예술영화 《소년빨찌산》 중에서

푸른 언덕 올라서서 배움에 즐겁던
자랑스런 우리들의 마을을 보아라
타다남은 담벽에 동무의 피 어려있다
아 나어린 가슴에 증오의 불은 일어
나섰다 복수의 길로 동무를 위하여

하늘 푸르고 시내 맑은 우리 조국땅에서
피에 주린 침략자 모조리 쳐부시자
부모형제 피자국은 우릴 보고 웨친다
아 나어린 어깨에 복수의 총을 메고
나섰다 승리의 길로 조국을 위하여

꽃이 피는 봄날을 안아오리라

예술영화 《숲은 설레인다》 중에서

가슴속에 품고산 이내 희망도
설레이는 푸른 숲 예서 꽃피리
너를 위해 바치리 이내 청춘을

푸른 숲에 새들이 찾아올적에
열매따는 사람들 기뻐할적에
노래해다오 푸른 숲이여 이내 행복을

나의 꿈을 키워준 그 품도 여기
나의 삶을 꽃펴준 그 품도 여기
너와 함께 빛내리 이내 한생을

새날의 청춘

예술영화 《신혼부부》 중에서

우리는 언제나 즐겁게 노래부르며
나란히 저녁마다 일터에서 돌아온다네
(후렴)

심장에 남는 사람

예술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 중에서

작사 리춘구
작곡 김덕수

보통속도로 정서있게

오랜 세월을 같이 있어도
기억속에 없는이 있고
잠간 만나도 잠간 만나도
심장속에 남는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귀중해

새 별

예술영화 《새별》 중에서

새별처럼 청춘을 빛내이자고
굳은 맹세 다지며 그대 떠났네
별이여 전해다오 나의 노래를
사무치게 그리운 나의 님에게

생의 흔적

예술영화 《생의 흔적》 중에서

작사 조성태
작곡 황진영

눈바람 불어오면 사라져가는
그 자욱 인생의 흔적이던가
내 한생 조국을 받드는 참다운 길에
값높은 삶의 자욱을 남기리

가슴에 스며드는 따뜻한 사랑
언제나 그 언제나 손잡아이끄네
당이여 어머니당이여 그대를 위해
값높은 삶의 자욱을 남기리

내 삶을 이어가리

예술영화 《생의 흔적》(속편)
《이어가는 참된 삶》 중에서

작사 김은숙
작곡 배용삼

보통속도로 절절하게

향기도 그 향기 열매도 그 열매
한뿌리에 내린 생은 언제나 한모습
나의 부모 걸은 길에 내 삶을 이어가며
고향아 네 산천에 흔적을 남기리

해빛밝은 이 땅우에 뿌리를 내린 삶은
억세인 거목으로 푸르러 설레이리
나의 부모 걸은 길에 내 삶을 이어가며
조국아 그대 품에 흔적을 남기리

심장깊이 새긴것 무엇이던가

예술영화 《세번째 금메달》 중에서

사랑하는 벗들과 정답게 사귈 때
우리 서로 약속한것 무엇이던가
청춘의 사랑도 우정도 조국에 바쳐가리라
나는 약속했네

조국을 떠나 먼곳에 있을 때에도
심장깊이 새긴것 무엇이던가
은혜론 조국의 그 이름 소중히 지켜가리라
나는 맹세했네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

예술영화 《세월이 흘러간 뒤》 중에서

작사 전동우
작곡 고수영

새들은 저 산 넘어 어데로 가나
보금자리 정다운 품으로 가네
(후렴)

태양을 따르는 별

예술영화 《쉰두개의 별》 중에서

가는 길 멀다 말아 붉게 타는 별이여
은혜론 태양의 빛발이 앞길을 밝혀주네
그 사랑을 안고사는 별
그 믿음을 안고사는 별
밤안개 비구름 막아도 웃으며 헤쳐가네

저 하늘끝에 가도 빛나는 별이런가
태양의 빛발에 싸이여 그 모습 변함없네
그 사랑에 빛을 뿌리며
그 믿음에 빛을 뿌리며
세월의 끝까지 따르는 태양의 별이 되리

내 한생의 어버이 내 한생의 스승

예술영화 《자강도사람들》 중에서

작사 연형묵
작곡 김창걸

주신 사랑 이 심장에 흐르는 피가 되고
주신 믿음 이 몸에 솟는 힘 되였습니다
(후렴)

좋은 날만 효자되랴 준엄한 날 충신되리
세월의 한끝까지 모시고 따르렵니다
(후렴)

즐거운 방목길

예술영화 《자신에게 물어보라》 중에서

들국화 곱게 핀 언덕 넘어
이 마음 즐겁게 달려가면
풀 뜯던 귀여운 송아지도
기뻐서 뛰노네
(후렴)

찬바람 비바람 헤쳐가며
이슬에 옷자락 젖었어도
청춘의 보람이 여기 있어
기쁨 넘치네
(후렴)

어머니조국에 남아있으리

예술영화 《자신에게 물어보라》 중에서

저 멀리 흘러간 세월을 돌이켜보시라
그대는 무엇을 위하여 구슬땀 흘렸던가
청춘의 더운 가슴 헤치던 그 열정
어머니조국 위해 바쳤는가를

저 멀리 흘러간 세월을 돌이켜보시라
그대는 자신을 위하여 걸어왔던가
찬바람 눈비속을 헤쳐온 그 자욱
어머니 내 조국에 남아있으리

전사의 노래

예술영화 《전사들》 중에서

작사 김정훈
작곡 라 국

빠르지 않게 서정을 담아서

땀배인 군복속에 전사가 간직한것
어머니편지인가 마라초쌈지던가
전사는 품고산다네 가슴속 깊은 곳에
소중히 안아지킨 조국을 조국을

불타는 전호에서 전사가 그린것은
고향의 물맛인가 구수한 흙냄샌가
전사는 못 잊어라 참다운 삶을 누린
고마운 장군님의 그 품을 그 품을

전사들 길이 빛날 위훈을 세우고도
자그만 엽서 한장 고향에 보내였네
어머니 잊지 마시라 싸움은 힘겨웠어도
장군님 계시기에 이겼네 이겼네

웃음꽃 폈네

예술영화 《전사의 어머니》 중에서

발고랑마다 풍년을 불러 금물결 늠실늠실
전선의 오빠소식을 안고 기쁨도 넘실넘실
아 승리의 그날에
훈장 달고 오는 오빠 마중가자요

조국의 전초선을 지켜가리라

예술영화 《전초선》 중에서

언땅우에 가슴을 대고 이 한밤을 지새워도
붉은 피 높이 뛰는 심장은 불타네
조국의 전초선을 지키여가리라

간악한 원쑤놈들 우리를 노리고있다
억세게 틀어쥐자 계급의 총검을
조국의 전초선을 철벽으로 지키리

우리를 불러다오

예술영화 《젊은 려단장》(제1, 2부)중에서

오늘의 훈련으로 땀젖은 군화밑에
불속의 탄피를 밟으리
이 순간 지난 뒤에 그날이 다시 올지
누구도 알수 없네
(후렴)

피어린 포화속을 헤쳐온 군기에는
아직도 포연이 어렸네
이 순간 지난 뒤에 그날이 다시 올지
누구도 알수 없네
(후렴)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동해의 물결은 드높고
우리 힘으로 락원을 꾸민다
우리는 선구자 세기를 앞당겨나간다
로동당부름에 심장은 피끓고
영원한 사랑을 조국에 바치네
(후렴)

한별을 지켜가리라

예술영화 《조선의 별》 중에서

무너지는 하늘 떠이고 우리 삶을 지키여주네
천만겨레 애타게 찾은 태양의 그 품이여
조선아 너를 위해 이 가슴에 불타는 소원
한별 한별을 위하여 이 한몸 바쳐가리라

그 사랑이 배워준 노래 그 누구도 뺏지 못하리
그 신념이 심어준 절개 그 뉘도 꺾지 못하리
조선아 너를 위해 이 가슴에 불타는 소원
천년만년을 이어서 한별의 노래부르리

동지애의 노래

예술영화 《조선의 별》 중에서

돌우에 피여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거라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

예술영화 《조선의 별》 중에서

이 세상을 구원해줄자 그 어디에 있느냐
하나가 천만힘될제 압제의 사슬 끊으리
겨레의 삶을 위해 인간의 존엄을 위해
력사의 닻을 올렸다
한별 한별 한별 만세

새 세기의 려명은 밝아 투사들은 일어났네
자주의 시대는 왔다 인간의 노래부르자
혁명의 항로에 빛나는 우리의 한별
력사의 닻을 올렸다
한별 한별 한별 만세

조국의 바다 지켜 영생하리라

예술영화 《종군기자의 수기》 중에서

작사 박두선
작곡 라 국

저 멀리 수평선너머 포성은 울리고
가렬한 전투속에 이밤도 지새네
높이 날려라 람홍색군함기
충성의 항로에 빛나는 위훈을 새겨가네

불바람 휘몰아치고 파도는 세차도
성스러운 이 한길에 한목숨 바치리
언제나 깨끗한 병사의 량심
조국의 바다를 지키여 해병은 영생하리라

숙이의 노래

예술영화 《준엄한 나날》 중에서

산밑의 귀틀집 등잔불가에
심장을 불태우며 지새우시는
아버님 그리며 기다리는 마음
한가슴 차고넘쳐 터져갑니다

서산에 졌던 해는 다시 솟는데
언제나 기발 들고 돌아오시나
안타까운 이내 마음 노래에 담아
아버님께 고이고이 보내옵니다

내 어머니 품

예술영화 《줄기는 뿌리에서 자란다》 중에서

속태운 이 아들을 매질한 그밤에
몰랐네 나의 어머니 눈물 흘린줄
날 안아 다정히 팔베개 베워주시며
아 내 희망 꽃펴준 어머니

다 자란 이 아들이 먼길 떠날 때
몰랐네 나의 어머니 함께 걸은줄
나먼저 바람찬 이슬길 헤쳐가시며
아 내 운명 살펴준 어머니

못 잊을 병사의 추억

예술영화 《줌대는 나의 대학》 중에서

못 잊을 병사의 추억 전호가에 스며드니
이 손을 잡아주시던 수령님이 그립습니다
나의 병사 영웅들이 귀중하여서 하늘같이 넓은 품에
안아주신 사랑의 그 품 아 못 잊습니다

못 잊을 병사의 추억 세월 간들 지워지랴
장군님 오시는 길에 수령님은 함께 계시네
만세소리 우뢰처럼 터져오르는 조국통일 대광장에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을 아 높이 모시리

중대가 가르쳐주었네

예술영화 《중대는 나의 대학》 중에서

어데서 알았던가 총대의 귀중함을
명사수기쁨속에 빛나던 그 사진이던가
병사가 틀어잡은 총우에 조국이 실려있는줄
나에게 가르쳤네 중대가 가르쳐주었네

어데서 알았던가 조국의 귀중함을
그리운 우리 평양 지키던 잠복의 밤인가
병사가 총과 함께 한생을 초소에 서야 하는지
나에게 가르쳤네 중대가 가르쳐주었네

바라노라 조국아

예술영화 《진심을 바치라》 중에서

작사 김석천
작곡 배용삼

바라노라 나의 조국아 그대의 넓은 대지에
그 언제나 꽃들이 피고 황금이삭 설레이기를
번영하는 그대 모습에 병사의 행복있어
눈비를 맞으며 전호가에 나는 사노라

바라노라 나의 조국아 그대의 밝은 모습이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해와 같이 찬란하기를
사랑하는 나의 조국인 장군님안녕을 지켜
병사의 한생은 총대처럼 변함없으리

젊은 기관사

예술영화 《철길우에서》 중에서

사랑하는 고향땅을 그리여보며
변함없이 싸워온 젊은 기관사
쓰러진 전우의 원한을 씻으려
뜨거운 가슴속에 맹세를 다졌네

적탄알이 비발치는 포화를 뚫고
사선을 헤쳐온 젊은 기관사
피어린 천리길 만리를 간다 해도
수령님께 바친 맹세 지키여 싸우리

해빛을 별빛을 가슴에 안고

예술영화 《철길을 따라 천만리》 중에서

해빛을 별빛을 가슴에 안고
내 삶이 가야 할 길 몇천몇만리
낮이나 밤이나 오직 한마음
당을 따라 영원히 우리 가리라

장군님따라 싸우는 길에

예술영화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 중에서

사랑하는 조국 위하여
이 한몸을 바쳐가리라
혁명의 길은 간고하여도
청춘의 희망은 넘친다
장군님따라 싸우는 길에
영원히 충성을 다하리

몰아치는 폭풍 사납고
시련에 찬 길은 멀어라
혁명의 길은 험난하여도
광복의 그날은 오리라
장군님따라 싸우는 길에
목숨도 아낌이 있으랴

조국광복 그날을 위해
험산준령 넘어가리라
혁명의 길은 간고하여도
승리의 그날은 오리라
청춘의 심장 멎는다 해도
장군님품에 영생하리

나의 길

예술영화 《청년들을 자랑하라》(제1, 2부)중에서

가까이 어서 오라 다정히 부르는
자애론 그 모습이 눈에 어려오네
내 요람 살펴주던 따사론 그 사랑이
끝없이 이어지는 나의 길이여

인생이 가는 길엔 갈래가 많아도
내 삶이 가야 하는 길은 오직 하나
그리운 그 품으로 가다가 쓰러져도
천만이 가는 길에 밝은 별이 되리

키운 정 못 잊어서 따르는 길인가
그 품을 떠나 못살 삶의 길이여라
장군님심장에서 시작된 나의 길은
그리움에 이어지는 영생길이여라

조국이 부르는 길에

예술영화 《청춘의 심장》 중에서

맹세를 다지며 떠난 이 길을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리라
불타는 심장 바치는 길에
청춘의 영예는 더욱 빛나네

세상에 이 몸이 태여난것은
나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이랴
청춘의 심장 바칠 곳 하나
죽어도 빛나는 생을 찾으리

이 땅에만 피는 꽃

예술영화 《추억속에 영원하리》 중에서

정깊은 아버지품에선 자식들 정도 깊어
나누는 밥 한술우에도 사랑이 넘쳐나네
(후렴)

아버지 따르는 한마음 오가는 정이 되고
뜨겁게 오가는 그 마음 아버지기쁨되네
(후렴)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

예술영화 《추억의 노래》 중에서

그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
목숨보다 귀한것 무엇인가를
전호가에 불타던 한그루 나무
나에게 말해줬네 조국이라고

그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
한생보다 귀한것 무엇인가를
나의 전우 물려준 피젖은 기발
나에게 말해줬네 조국이라고

강산은 불타고 재가 되여도
전사의 신념은 억세여지네
아 어머니 나의 조국은
장군님 계시여 영원하여라

승리의 그날은 오리라

예술영화 《축포가 오른다》 중에서

하늘은 포화에 붉게 물들고
전사의 가슴엔 충성 불탄다
수령님 찾아주신 내 조국땅을
한목숨 다 바쳐 지켜내리라

싸움의 불길이 어려서인가
전선의 저 달은 더욱 밝고나
그 밝은 달빛속에 래일을 보는
전사의 가슴은 설레이여라

기쁨도 시련도 함께 나누며
충성의 한길로 우리는 가리
수령님명령 지켜 가는 이 길에
청춘도 생명도 바쳐가리라

초소의 친형제

예술영화 《친형제들》 중에서

피줄로 이은 사랑 그 사랑 고향집문턱 못 넘어도
뜻을 나눈 사랑 그 사랑 사선도 넘을수 있어라
생사를 같이하며 맺어진 친형제
초소의 형제여

총잡은 병사의 영예 영예도 우리 함께 빛내이고
결전에 나설 용맹 용맹도 우리 함께 키워가네
장군님 한품에서 영원할 친형제
초소의 형제여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

예술영화 《친위전사》 중에서

사령부하늘 바라보면서 친위전사들 맹세해
혈전의 길을 뚫고가리라 불바다를 헤쳐가리라
장군님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운명이다
억천만번을 우리 살아서 장군님을 보위하리라

험산준령을 넘고넘으며 천고밀림을 헤치며
사령부안녕 지키여가는 전사들의 간절한 마음
장군님은 조국의 심장 혁명의 심장이다
억천만번을 우리 살아서 장군님을 보위하리라

싸움의 앞길 멀고멀어도 끝까지 안녕 지키리
광복된 조국 금수강산에 장군님을 모시고 가리
장군님은 조국의 심장 혁명의 심장이다
억천만번을 우리 살아서 장군님을 보위하리라

떠나는 마음

예술영화 《친위전사》 중에서

작사 백인준
작곡 리학범

보통속도로 절절하게

이내 몸은 어데 가도 마음은 그 언제나
장군님과 함께 가리 높은 산 깊은 밀림
아 높은 산 깊은 밀림

날이 새면 떠나가는 내 마음 알아다오
눈바람아 불지 말아 사령부창문가에
아 사령부창문가에

전우의 노래

예술영화 《7련대의 아들》 중에서

찬이슬 철갑모에 함께 맞았고
구수한 군용밥통 그 맛도 나눴지
동무여 나의 전우여 우리 우정은
아 생사를 같이할 동지의 그 사랑

남해의 푸른 물에 총신을 식히며
전우의 그 노래를 더 높이 부르리
동무여 나의 전우여 우리 우정은
아 불속도 함께 갈 영원한 그 맹세

대동강의 노래

예술영화 《큰 심장》 중에서

작사 전동우
작곡 서정건

서정적으로

너의 물을 마시면서 우리 자랐네
너의 물에 씻기면서 담을 키웠네
용맹의 날개 펼치여라 오늘도 부르네
어머니대동강아 정든 물결아

영웅들의 넋이 어려 너는 푸르고
은혜로운 사랑어려 너는 맑아라
이 나라의 젖줄기로 영원히 흐르라
어머니대동강아 조국의 강아

노을아 붉은 노을아

예술영화 《8련대 정치위원》 중에서

노을아 너를 보며는 밀영의 불빛 보이고
내 마음 창문가엔 언제나 밝은 해빛 비쳐오네
그러면 나의 가슴은 낮도 없이 밤도 없이
아 뜨겁게 탄다네 나의 태양 따라서

노을아 기폭과 같이 이 몸을 감싸주려마
눈바람 몰아쳐도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주렴
그러면 나의 가슴은 영원히 불타리라
아 어버이수령님 나의 태양 따라서

장군님 발자국소리

예술영화 《한 녀학생의 일기》 중에서

눈덮인 령길에 자욱을 새기며
전선길 가시는 아버지안녕 바라네
깊은 밤 별빛이 고요히 흐르는데
조용조용 들려오네 장군님 발자국소리

너와 나 정답게 부르는 아버지
온 나라 가정에 귀중한 우리 아버지
하늘땅 끝까지 따라서 가는 길에
너도나도 안고살자 장군님 발자국소리

오직 한마음

예술영화 《한마음으로》 중에서

래일의 우리 행복 그 누가 지키랴
로동당이 지키네 수령님이 살피시네
김일성원수님이 우리 앞길 밝히시니
영원히 변치 않을 오직 한마음

세상에 두려운것 하나도 없네
산이라도 옮기고 바다라도 막으리
김일성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언제나 힘이 솟네 오직 한마음

광복의 길 찾는다

예술영화 《한 지대장의 이야기》 중에서

피어린 정든 고향을 떠난지 몇해냐
타향살이 설음이 뼈에 사무치네
가도가도 끝이 없네 아득한 지평선
방울소리 처량하게 가슴 울리네

낯설은 가시덤불길 천리인들 못 가랴
밀림속의 붉은 매 깃을 찾아가네
가도가도 끝이 없네 광복의 길 찾는다
나라위한 일편단심 변함없어라

달리는 못살아

예술영화 《효녀》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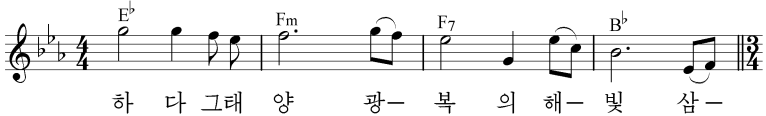
새싹이 움틀적엔 뿌리가 되고
이삭이 여물적엔 거름이 되리
달리는 달리는 못살아 나는야 못살아
이내 마음 못다 바친 효성이 있어

사람들 꽃을 보고 곱다 하지만
푸른 잎없이 어이 필수 있으랴
달리는 달리는 못살아 나는야 못살아
꽃을 주고 열매 주는 푸른 잎되리라

꿈에도 나를 찾는 정다운 소리
꿈에도 불러주는 그리운 소리
달리는 달리는 못살아 나는야 못살아
그 언제나 이 딸은 아버지의 딸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난대도
이 세상 저 먼끝에 버려진대도
달리는 달리는 못살아 나는야 못살아
그 언제나 이 딸은 아버지의 딸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

예술영화 《해발》 중에서

은혜로운 장군님의 뜨거운 손길
녀전사는 고마움에 눈물집니다
들에 핀 한떨기 이름없는 꽃에도
그 해빛은 따사롭게 안겨집니다
고마워라 그 은혜 끝없는 행복
충성의 붉은 마음 더욱 불타네

3천만 인민들은 한마음으로
김일성장군님을 노래합니다
백두의 밀림에서 높이 솟은 태양
삼천리 조국강산 비쳐줍니다
찬란하다 그 이름 **김일성**장군
3천만은 노래합니다 우리의 태양

녀전사의 노래

예술영화 《해발》 중에서

어렸을 때 부모잃고 동생도 잃고
머슴살이 천대속에 헤매던 이 몸
은혜로운 장군님의 해빛속에서
혁명의 전사로 자랐습니다
은혜로운 그 해빛을 가슴에 안고
붉은 넋은 조국땅에 길이 피오리다

산넘어 구름너머 아득한 저기
장군님이 계신 곳은 멀고멀어도
철창속에 비쳐오는 밝은 해빛은
이 가슴에 따사롭게 안겨집니다
이 한몸은 억천만번 죽는다 해도
일편단심 혁명절개 지켜가오리다

꽃피는 일터

예술영화 《꽃피는 마을》 중에서

들에는 넘실 금물결인가 황금나락 춤을 추니
충성으로 꽃핀 마을마다 행복이 넘치네
수령님의 은덕아래 번영하는 내 나라
예가 바로 황금들판 꽃피는 일터라오

산에는 산마다 과일풍년 들판엔 양떼 흘러
창조로 꽃핀 농장마다 희망이 넘치네
사회주의락원속에 행복하게 사는 나라
예가 바로 황금들판 꽃피는 일터라오

해빛밝은 내 나라

예술영화 《끝없어라 나의 희망》 중에서

작사 백인준
작곡 김린욱

은혜론 해빛이 락원우에 비치니
이 땅에 붉은 꽃 만발하여라
천리마 나래치는 번영하는 내 나라
사람들은 모두 청춘이라네
（후렴）

오고가는 한마음

예술영화 《아들들》 중에서

정든 집을 멀리 떠나 초소에 우리 살아도
안아주고 살펴주는 살뜰한 손길있어라
당의 품에 꽃피여난 어머니 그 사랑은
위훈의 별로 빛나리

오고가는 사랑속에 군민의 정 꽃피고
서로 돕는 그 마음에 초소는 철벽이라네
조국위한 한길에서 이어진 우리 마음
영원히 꽃으로 피리

아름다운 거리

예술영화 《아름다운 거리》 중에서

꽃속을 헤치고서 솟았나
알뜰한 나의 정든 집
꽃향기 그윽하게 풍기는 아름다운 이 거리
혁신의 굳은 맹세 어기지 말자고
충성의 마음 담아 붉게 피였네

애어린 한그루의 나무에
조국의 래일을 보며
싱싱히 자라거라 살피는 록화의 전사들
비바람 탓할소냐 눈보라를 가리랴
정성으로 곱게곱게 수놓아가네

어머니의 행복

예술영화 《어머니의 행복》 중에서

때로는 애가 타 종아리치며 눈물을 감춰왔건만
아들아 다 자라 조국을 아니 기쁨에 웃음짓는다
오만자루 품들이느라 검은머리 희여졌어도
그것이 둘도 없는 어머니의 자랑이란다

한가정 울타리 뛰여넘어서 조국의 큰집 지켜선
아들아 선군의 장부가 되여 어머니품에 안겨라
장군님의 저 병사가 내 아들이라 말할 때
그것이 둘도 없는 어머니의 행복이란다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 중에서

작사 최희건
작곡 김건일

머나먼 산기슭에 바람 세차도
푸른 꿈 안고사는 처녀의 마음
찬서리 눈속에 묻혀도 묻힌다 해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꿈많은 그 시절은 흘러갔어도
하나의 소원 안고 사는 이 마음
청춘의 사랑은 소중해도 소중하여도
보람찬 이 길에서 행복 찾으리

따사로운 그 품이 그립습니다

예술영화 《영원한 전사》 중에서

작사 김동전
작곡 한시준

서정적으로

걸어온 길 몇천리 걸어갈 길 몇만리
혁명위해 가는 길 멀고 또 먼데
아 장군님 어느 곳에 계시옵니까
따사로운 그 품이 그립습니다

정다워라 우리 거리여

예술영화 《우리가 사는 거리》 중에서

작사 주정웅
작곡 고수영

꽃피는 공원에 아이들 뛰놀고
불밝은 극장은 밤마다 우릴 부르네
(후렴)

우리가 흘리는 성스런 땀속에
눈부신 해빛을 안고서 펼쳐진 거리
(후렴)

어버이수령님 받들어모시고
천만년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리라
(후렴)

고향아 너는 내 사랑

예술영화 《우리는 여기서 산다》 중에서

순결한 피와 땀 묻으며 바쳐온 정이 있어
내 사는 이 땅의 한줌 흙 황금보다 귀중해라
네 품 떠나서 못살아 추억깊은 정든 산천
나의 고향아 너는 내 사랑 여기서 우리 살리

한생의 리정표 세워준 어머니고향에서
봄날을 찾아서 떠나는 철새처럼 어이 살랴
삶의 뿌리를 내리고 가꿔가는 정든 산천
나의 고향아 너는 내 사랑 여기서 우리 살리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예술영화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 중에서

그대가 크나큰 심장이라면
이 몸은 그 품에 뛰는 피방울
마지막 한방울 다할 때까지
높뛰는 고동을 더해주리라
아 나의 조국아
높뛰는 고동을 더해주리라

은혜론 품속에 나서자라나
나 하나 행복을 바라고살랴
청춘의 그 나이 묻지를 말라
순간을 산대도 값있게 살리
청춘의 그 나이 묻지를 말라
순간을 산대도 값있게 살리

추억의 노래

예술영화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 중에서

작사 리혁수
작곡 김건일

보통속도로 랑만적인 서정을 안고

머리에 흰서리 내린 머나먼 그날에도
추억의 노래를 부르자 위훈의 노래를
조국의 하늘을 지켜온 위훈의 노래를

저 하늘 멀리 가도 못 잊을 정다운 품
추억의 노래를 부르자 조국의 노래를
결전의 나날에 맺어진 전우의 노래를

축포가 오르는 그날 우리 서로 만나
추억의 노래를 부르자 승리의 노래를
전승의 광장에 모여서 춤추며 노래하자

하늘의 방패 우리가 되리

예술영화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 중에서

작사 전동우

보통속도로 랑만적이며 힘있게

작곡 김건일

저 하늘에는 길이 많아도 갈길은 오직 한길뿐
기다리는 품이 있기에 만리라도 돌아온다네
출격 출격 명령이 내려 푸른 하늘로 높이 날을제
장군님을 보위하는 하늘의 방패 우리가 되리

날개우에는 해와 별이 승리의 항로 비치고
날개밑에는 정든 산천 위훈에로 불러준다네
출격 출격 명령이 내려 푸른 하늘로 높이 날을제
당중앙을 사수하는 하늘의 방패 우리가 되리

당을 따라 별처럼 나도 살리

예술영화 《운행길에서 만난 처녀》 중에서

따뜻한 동산에만 꽃들이 곱게 피나
찬바람에 피는 꽃은 그 모습 더욱 곱네
아 붉게 피는 그 모습 더욱 곱네

고요한 하늘에만 별들이 반짝이나
가슴속엔 붉게 타는 충성의 별이 있네
아 변치 않는 충성의 별이 있네

싸움의 그날에만 영웅이 있었던가
꽃이 피는 락원에도 영웅은 살아있네
아 그 언제나 영웅은 살아있네

순간을 산다면 꽃처럼 나도 살고
한평생을 산다면 별처럼 나도 살리
아 당을 따라 별처럼 나도 살리

빨찌산녀전사들 노래부르네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 중에서

산속엔 나리꽃 곱게 피였고
시내물 정답게 흘러내리네
고향의 부모형제 상봉을 위해
빨찌산녀전사들 싸워이기네
아 빨찌산녀전사들 싸워이기네

밀영의 하늘엔 꽃구름 피고
혁명의 붉은기 높이 날리네
장군님 따사로운 넓은 품속에
빨찌산녀전사들 노래부르네
아 빨찌산녀전사들 노래부르네

비판받은 두 동무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 중에서

남몰래 빠져가는 그 사람에게
영문도 모르면서 칼을 주고서
보초근무 잘못 섰다 비판만 받고
칼도 없는 곤봉부대 되고말았네
칼도 없는 곤봉부대 되고말았네
칼도 없는 곤봉부대 되고말았네

버섯따는 처녀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 중에서

심산에 단풍은 붉게 타고요
바구니 가득히 버섯 따세나
정다운 유격구 우리 마을에
노을이 곱게 물들었단다
산 넘어 령 넘어 어서 가세나
버섯을 따세나 버섯 따세나

노래는 산속에 남겨두고요
바구니 이고서 돌아가세나
저 멀리 나팔소리 들려오는데
승전고 드높이 빨찌산 왔네
산 넘어 령 넘어 돌아가세나
어서어서 가세나 어서 가세나

바라는 마음

예술영화 《유산》 (제1, 2부)중에서

행복만 알며 자란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한생에 안고사는 참된 삶의 진리가 있다
조국의 운명인 장군님만 믿고 따라온
선렬들 그 진정 변함없이 이어가다오

백두의 후손들아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이 땅을 빛내여갈 내 나라의 기둥되여라
인민의 행복인 장군님만 따르는 마음
천만년 이어가며 유산으로 물려가다오

기쁨의 노래 안고 함께 가리라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 중에서

고요한 별밑엔 나를 찾지 마시라
꽃피는 내가에도 찾지 마시라
눈바람 몰아치는 저 언덕우에서
그대여 찾아다오 이내 모습을

밤하늘에 말없이 반짝이는 별같이
가시는 걸음마다 비쳐주리라
머나먼 저 산너머 노을이 피여올 때
기쁨의 노래 안고 함께 가리라

이 세상 끝까지 우리 가리라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 중에서

작사 리춘구
작곡 김린욱

흠모의 정을 안고 절절하게

지난날 쓰라린 설음을 안고
피눈물 뿌리면서 헤매이던 길
수령님 찾아주신 행복의 길에
이 마음을 보석으로 수놓아가네

강산에 넘치는 해빛이런가
가슴에 흘러드는 어버이사랑
전사는 고마움에 목메여 울고
대지는 기쁨에 설레이여라

세월은 흐르고 산천은 변해도
수령님 모신 마음 변함없으리
이 세상 모든 행복 모든 영광은
충성의 한길에서 영원하리라

수령님 계시여 인민이 있고
인민은 수령님께 한몸 바치네
아 대를 이어 영원히 따르리
이 세상 끝까지 우리 가리라

조국위해 다진 맹세 지켜가리라

예술영화 《잊지 못할 전우》 중에서

가슴에 불타는 사랑을 안고서
언제나 어디서나 충성 다하리라
아 행복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조국위해 다진 맹세 지켜가리라

포연이 날리는 전호속에서
녀전사는 전우위해 정성을 다해가네
아 언제나 충성의 한마음 안고
수령님 주신 행복 지켜가리라

불타는 고지에서 미래를 그리며
한없는 사랑 안고 지켜낸 나의 조국
아 승리의 기쁨을 가슴에 안고
수령님 주신 행복 꽃피워가리라

정다워라 나의 일터여

예술영화 《애착》 중에서

작사 최로사
작곡 박용필

눈보라 비바람 앞을 막아도
변함없이 지켜온 나의 초소여
여기서 내 희망 노래로 피여나
찬란한 미래로 날아간다네
여기서 내 희망 노래로 피여나
찬란한 미래로 날아간다네

위훈의 길 시작은 어딘가

예술영화 《위훈의 길》 중에서

어린시절 가방 메고 오가던 등교길
나를 불러 반겨주던 배움의 종소리
빛나는 위훈의 그 길은 거기서 시작되네

엄하고도 다심하던 스승의 목소리
동무들과 함께 심어 가꾸던 버드나무
빛나는 위훈의 그 길은 거기서 시작되네

장군님 받드는 길에서 위훈을 떨쳐가리

생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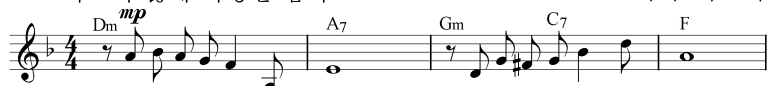
예술영화 《의용군녀병사들》 중에서

시내물 모여서 강을 이루듯
날들이 모여 생을 이루리
그 생이 짧은들 누가 탓하랴
영생은 시간과 인연없어라

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라
세월이 간대도 잊을수 없는
조국에 바쳐진 순간이라고

고요한 아침에 이슬이 지듯
나의 생 사라진대도
어머니조국은 기억하리라
병사의 이름과 걸어온 길을

나는 알았네

예술영화 《월미도》 중에서

불타는 전호가에 노을이 비껴오면
가슴에 못 잊어서 그려보는 곳
아 내 고향 들꽃피는 그 언덕이
둘도 없는 조국인줄 나는나는 알았네

살아도 그 품속에 죽어도 그 품속에
언제나 사무치게 불러보는 곳
아 어머니라 부르는 나의 조국이
장군님의 그 품인줄 나는나는 알았네

나는 군복을 벗지 않았네

TV련속극 《로병의 유산》 중에서

저 하늘에 별이 뜰 때도 내 마음 그대들곁에
저 산발에 비가 내려도 내 노래 그대들곁에
군기앞에 다진 선서를 한생에 간직하자고
아 마음속에 군복을 벗지 않았네

황금같은 청춘시절을 조국에 바쳤다지만
두번다시 바칠 심장이 오늘도 불타고있네
조국이여 나를 믿으라 장군님 위하여 사는
아 내 한생은 언제나 전호와 함께

소중한 내 동무

TV련속극 《붉은 소금》 중에서

동무야 나의 동무 소중한 내 동무야
불같은 우리의 우정 뜨겁게 뜨겁게
당의 뜻 고이 지닌 우리의 한마음
너와 나 하나일 때 불길이 되리라

동무야 나의 동무 소중한 내 동무야
순결한 우리의 우정 깨끗이 깨끗이
당의 뜻 고이 지닌 우리의 한마음
너와 나 하나일 때 추억도 영원해

사랑은 내 조국에 증오는 원쑤에게

TV련속극 《붉은 흙》 중에서

아 사랑은 나의 조국 아 사랑은 나의 조국
준엄한 결전의 언덕에 서니 이 땅이 더욱 소중해
잃고선 못살 조국을 위해 원쑤를 증오하라
피땀이 스민 조국을 위해 원쑤를 증오하라
증오는 원쑤에게

아 사랑은 나의 조국 아 사랑은 나의 조국
심장에 간직한 삶의 진리를 죽어도 잃지 않으리
장군님품에 길이 번영할 귀중한 우리의 땅
한목숨 바쳐 지켜갈 맹세 변함이 없으리라
조국아 믿어다오

정다운 어머니

TV극 《빛나는 강산》 중에서

그 해빛 안고서 우리의 삶은
영원히 꽃피여나고
장군님품속에 강산은 빛나
영원히 번영하리라
(후렴)

석개울아 흘러라

TV련속소설 《석개울의 새봄》 중에서

작사 박인서
작곡 김정수

약간 느리게 서정적으로

하늘땅에 울려가는 협동화의 종소리
이 가슴에 넘쳐흐르는 희망의 노랠세
대를 이어 길이길이 살아나갈 고향땅을
청춘을 바쳐 빛내리 빛내여가리라

동지의 사랑

TV련속극 《항로》 중에서

물 한모금 놓고도 너를 바라보았지
나를 보는 눈빛은 불보다 뜨거웠네
믿음을 나누는 정깊은 사랑있어
동지를 알았네 그속에 나도 있음을

나의 곁에 너있고 네곁에는 나있어
동지로 맺어진 사랑은 끝이 없네
장군님 그리며 우리 마음 불타올라
기쁨도 슬픔도 너와 나 함께 나누네

모진 풍파 헤치며 서로 맺은 사랑은
인생의 먼길에 추억할 노래가 되리
참다운 사랑 준 장군님 그 품속에
영원한 동지로 너와 나 하나되리라

당의 숨결 걸음마다 새겨주리

TV극 《열망》중에서

한그루 나무에도 가꿔가는 정성없이
그 어이 푸르고 무성하는 숲이 되랴
그대의 마음속에 내 마음 함께 있으리
어머니당의 그 숨결 걸음마다 새겨주리

창가에 비내리는 깊은 밤에도
내 요람 지켜주는 어머니모습이런가
우러러바라보면 한없이 고마운 품이여
내 한생 손잡고 따르리 은혜로운 당의 품

해지는 저녁이면 노을비낀 동구길에
날 찾아 마중오던 어머니모습이런가
우러러바라보면 한없이 고마운 품이여
내 한생 손잡고 따르리 은혜로운 당의 품

군밤타령

좀 빠르게 건들거리며
mf
1. 군 밤이요 ——— 삶은 밤이로구 나—
바 람—이 분 다— 바 람—이 불 어— 건 넌 남—산에
에헤—에 라꽃바람부누나 얼 싸좋 네— 하좋 네 ———
군 밤이요 ——— 삶은 밤이로구 나—
군 밤밑에는삶은 밤 군—밤밑에는삶은 밤
삶은밤밑에는쪼각 밤 쪼각밤밑에는락엽이로구나
얼 싸좋 네— 하좋 네 ——— 삶은 밤이로구 나

2. 군밤이요 삶은 밤이로구나
구경을 가세 구경을 가세
금강산으로 에헤 에라 산구경 가잔다
얼싸 좋네 하 좋네

3. 군밤이요 삶은 밤이로구나
달맞이 가세 달맞이 가세
강릉 경포대 에헤 에라 달맞이 가잔다
얼싸 좋네 하 좋네

군밤이요 삶은 밤이로구나
군밤밑에는 삶은 밤 군밤밑에는 삶은 밤
삶은 밤밑에는 쪼각밤 쪼각밤밑에는 락엽이로구나
얼싸 좋네 하 좋네 삶은 밤이로구나

그네뛰는 처녀

작사 최로사
작곡 김준도
희망을 가지고
1.능 수 —— 버 들 휘 — 늘어 진 ————
뒤— 동 산 — 그 — 네터— 로 ————
오 월 — 이 라 — 실 —바 ——— 람 이—
훈훈 하 게— 불 — 어오— 네 —————
머 리마 다— 꽃 송이—로— 귀밑—머 리 ——
단장하-고— 분 홍—치— 마 — 하 늘-하- 늘 —
바람 타 —고 — 춤 —을추— 네 —————
(후렴)
에 —— 헤 야 즐 — 거워 —— 라 —

2. 새로 옮긴 랭상모가 농장논에 푸르고나
학두루미 꾀꼬리도 단오놀이 찾아왔나
앞내가 모래터엔 씨름판이 한창인데
한발을 더 굴렀더니 그 총각이 이겼구나
(후렴)

금강산타령

2. 비로봉에 달이 떴다 안개속에 날아든다
무지개 쌍쌍 무지개 쌍쌍 손짓하며 날 불렀네
손짓하며 날 불렀네
(후렴)

3. 봉이마다 기암초석 물결마다 파도치네
갈매기 쌍쌍 갈매기 쌍쌍 날아들드누나
날아들드누나
(후렴)

노들강변

멋들어지게(양산도장단)
mf F G C
1. 노 ——들 – 강 ——변 – 봄 버—— 들 –
F G7 C
휘 휘—— 늘 어 진 – 가 지 에다 가 –
F Am Dm F
무 정 —— 세 월 – 한 허 —— 리 – 를——
B♭ F G7 C
칭 칭— 동 여 – 서 매 여 – 나 볼 가 –
f Dm F B♭ C
에 헤 야 ———— 봄 ——버 – 들 도 –
p F7 C G7 C7
못 잊 으 ———— 리 로—— 다 –

2. 노들강변 백사장 모래마다 밟은 자욱
만고풍상 비바람에 몇번이나 지나갔나
에헤야 백사장도 못 잊으리로다
흐르는 저기 저 물만 흘러 흘러서 가노라

3. 노들강변 푸른 물 네가 무슨 망령으로
재사가인 아까운분 몇몇이나 데려갔나
에헤야 네가 진정 마음을 통털어서
이 세상 쌓인 한을 두둥실 싣고서 가거라

도 라 지

흥겹게(양산도장단)
mf
G
1. 도 ― 라 지 도 라 지 ― 도 ――
라 ――― 지 심 ―― 심 산 ―천 ―의 ―
백 도 ― 라 지 ― 한 ― 두
뿌리 만 ―― 캐 ――― 여 ――― 도
대바 구니 에 스리 살 ―살 ― 다 넘 ―누
(후렴)
mp
나 ― 에 ―헤 ―요 ― 데 ―헤 ―요 ―
에 헤 ――― 요 ― 에 ― 야 라
난 다 ― 지화 자 자 ― 좋 ――― 다
네가 내간 장 스리 살 ―살 ― 다 녹 ―인 다 ―

2.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요 몹쓸놈의 백도라지
하도 날데가 없어서 돌바위틈에 가 왜 났느냐
(후렴)

3.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강원도 금강산 백도라지
한뿌리두뿌리 뻗으니 산골에 도라지풍년일세
(후렴)

룡강기나리

자유롭고 류창하게
mp G
C
세 —월 이 좋 아
아
C
Dm
mf C
아
정
C
Am
C
든 —
땅
에
G
C
Dm
새 —살 림 펴 고
G C
잘 —살 아
보 —자
흥겹게 (굿거리장단)
mf Gm Dm Gm
B♭
1.연 분 홍—저 고— 리
남 깃 — 소
3.한 줌 —두 줌
모 를 — 내 니
Dm Gm Dm Gm
매
너 입 기—좋
구
노 래 —소 리—
가

(후렴)
Dm Gm Dm
나 보기 —좋 — 드 라 — 얼 씨 구—절 씨—
저 절로 —나 — 누 나 — 얼 씨 구—절 씨—
Dm Gm Dm Gm
구 — 지 화 자 —좋 — 구 나 —
구 — 지 화 자 —좋 — 구 나 —
f E♭ B♭ Dm Gm
2.옥 토 벌 전 야 에 풍 년 새 날 — 구 —
4.래 일 도 모 레 도 우 리 김 매 는 — 데 —
Gm Dm Gm Dm Gm
우 리 네—살 림— 엔 — 웃 음 꽃—피—누 나 —
건 너 마 을 젊 은— 이 —들 — 김 매 러 —오—려 마 —
(후렴)
Gm Dm Gm Dm
얼 씨 구—절 씨— 구 — 지 화 자 —좋 —구
얼 씨 구—절 씨— 구 — 지 화 자 —좋 —구
2.Gm 4.Gm Dm Gm
나 — 나 — 김 매 러 —오 —려 — 마 —

맑은 아침의 나라

2.가난과 어둠이 영원히 사라진 땅에
인민들의 로동은 즐겁기만 하구나
이 강산 그 어디나 오곡백과 넘치고
꽃피는 거리마다 노래소리 넘친다

3.수령님 모시여 행복한 내 나라
인민들은 그 품에 화목하게 산다네
삼천리 우리 겨레 피줄은 하나요
제주도 끝까지 이 행복을 누리자

명 승 가

2. 산좋고 물좋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남으로 화주대 북으로 운보산
청간정 바라보니 의상대로다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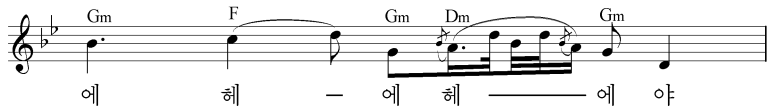
모 란 봉

흥겹게(굿거리장단)
작사 조령출
1.금 수산 ——— 제일——봉에 아침해발이—붉게피니 ———
꽃봉 오—리—완연하여 ——— 모란 봉이——라-하였—는가
양덕맹산—에—흐른 물은——— 청류벽 으로——감-돌아들고
릉라도 버들에 꾀꼬리—우니—— 대 동——강 에-봄-이-로다
이 강 산—좋은곳에 ——— 터를잡 은——평양이라
유 서 도 ———————————————깊거니 와 ———
혁명의 수도—로—더-욱-좋네 얼씨구 좋 —네-절씨구 야 ———

C G Em G A7 D
우 리네 평 양 은좋을-시 구——— 사회주의건-설아- 좋 -을-시구
f G Em G C G Bm Em
2.천 리 마 동상 아래 발걸음 을—멈 추 고 서 ———
G Em A7 D
을밀 대-에 —다시올 라 ——— 동서남 북을—바라—보니
mf G Em G A7 D
원 쑤 의불-비- 폭탄속 에 ——— 싸워 이 긴—우리—평 양
Am G Em G A7 D
상 — 처 도 씻은-듯-이——— 재를 털-고 —일어—섰네
f G Bm G Em G
궁 궐 같은-새집-들 은 ——— 여기저 기— 솟아일고
G D G
넓은거 리 ———————————화려—한 데 ———
Em A7 D f G C G
비둘 기훨 —훨-날아 —든다 얼씨구 좋 —네—절씨구 야 ———
Em Bm G Em G A7 D
우리네평양은좋 을-시 구——— 사 회주의건-설이-좋-을-시구

물레타령

애조적으로(중모리장단)
mp
Dm Gm Dm Gm
물레 야 ㅡ 물 레야 빙 빙 ㅡ 빙 돌아 라
Cm Gm Dm Gm
남 의 집 ㅡ 귀 ㅡ 동── 자 밤 ㅡ 이 슬ㅡ 맞는다
Dm Gm Dm Gm
에 야 ㅡ 디 야 에 헤 ──── 에 야
Cm Gm Dm Gm
에 야 라 ㅡ 디 ㅡ 여 라 성 ㅡ 화 가ㅡ 났 네
Gm Dm Gm Dm
물 레 야 가 락 아 네 우 지 ㅡ 말 ㅡ 어 라 ㅡ
Gm Dm Gm Cm Gm
네 가 ㅡ락 ── 소 ㅡ 리 에 내 ── 마 음 설 렌 다
mf
Gm F Gm Dm Gm
에 헤 ㅡ 에 헤 ──── 에 야

Gm
Dm
Gm
에 야 라 — 디 — 여 라 성 — 화 가 — 났 네
B♭
Gm
Dm
날 —보 러 오 려 마 날 —보 러 오 — 려 — 마
Gm Dm Gm
Dm
Gm Dm
Gm
이 — 밤 이 — 새 — 거 든 — 날 — 보 러 — 오 려 마
Dm
Gm Dm
Gm
물 레 야 — 물 레 야 빙 빙 — 빙 돌 아 라
Cm
Gm
Dm
Gm
이 밤 이 — 새 — 거 — 든 날 — 보 러 — 오 려 마
Gm
Dm
Cm
부 모 님 은 날 더 러 시 집 가 라 네 이 리 골 — 라 저 리 골 라 아 주 골 — 라
Gm
Dm
Gm
Dm Gm
호 부 자 네 아 들 이 좋 다 지 만 아 무 — 리 좋 아 도
Dm
Gm
나 에 게 싫 은 사 — 람 을 — 내 — 어 이 할 거 나

Gm F Gm Dm Gm
에 헤 — 에 헤 ——— 에 야
Cm Gm Dm Gm
에 야 라 — 디 — 여 라 성 — 화 가 — 났 네
Cm Gm
물 — 레 의 톡 갱 에 내 마 음 을 — 감 아 서
Dm Gm
우 — 리 님 — 만 — 나 면 다 — 풀 어 ——— 볼 거 나
Dm Gm Dm
물 레 야 — 물 레 야 빙 빙 — 돌 아 라
Cm Gm Dm Gm
우 리 님 — 만 — 나 면 다 — 풀 어 — 볼 거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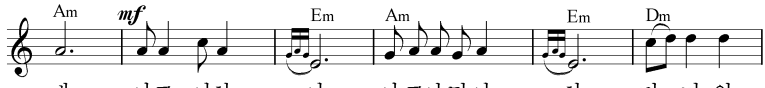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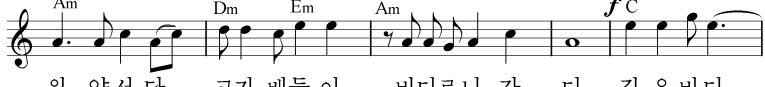
밀양아리랑

2. 정든 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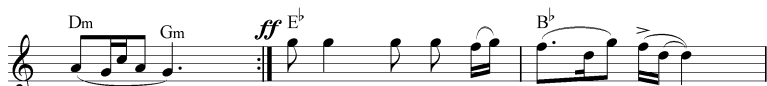
3. 지척이 천리라더니 도랑사인데
호박잎만 흔들흔들 날 속인다
(후렴)

바다의 노래

랑만적으로
작사 조령출
바다 ㅡ 물 ㅡ우에 갈매기날구ㅡ 요 정 든님ㅡ
배머ㅡ리에 옷자락날린ㅡ 다 어그 여차 여
어그야듸여 차 떠나갈 땐 빈배로가지만 돌── 아
올 ── 때는 배전에넘친 다 ─── 어그 여차 여
어그야듸야ㅡ 어그ㅡ여 차 바다로나간ㅡ 다 꽃이야ㅡ
곱 ── 다면 얼마나고우 랴 일ㅡ잘 하는 우── 리님
제일로곱더 라 ─── 어그 여차 여 어그야듸야ㅡ

Dm Em Am C mp
어그—여 차 바다로나간— 다 가공반— 처—녀 들—
C Em Am Dm Em Am
구성진노래소 리 천 리마— 작업—반이 신바람났다—
Am mf Em Am Em Dm
네 어그 여차 여 어그야듸여 차 바—다 의
Dm Em Dm Em Am
물 —고긴 잡도록좋구 요 —— 정 든 님— 노 래소린
Dm mp Em Am
듣도록좋다 네 ——— 어그 여차 여 어그야듸여
Em mf Am Dm Em Am
차 어그야듸야— 어그—여 차 바다로나간— 다
약동적으로 좀 빠르게
mf Am
어 그여 차 여 —— 어그 야듸 여 차 ——
Am Dm Em Am f C
원 양선 단— 고기 배들 이 바다로나 간 다 깊 은바다

ㅡ 물고ㅡ기 는 우 리들이 잡구ㅡ 요 얄 은 바다
ㅡ 물고ㅡ기 는 처 녀들이 잡 는다 네 어 그여 차
여 —— 어그 야듸 여 차 —— 우 ㅡ 리 —네ㅡ
어 장에 는 언제나만선 일 세 ㅡ 헤
좀 느리게
ㅡ 에 ㅡ 사시절바다를 비ㅡ우 지
말——구서 더많이잡아 주 ㅡ오ㅡ 어그 여차 여
어그야듸야ㅡ 어그ㅡ여 차 바다로나간ㅡ 다 ㅡ

박연폭포

멋들어지게(굿거리장단)
1. 박 연 ─ 폭 ─ 포 ─── 흘 러 내 리 는
물 ─── 은 ─ 범 ─── 사 ─ 정 으 로 ─
(후렴)
련 실 감 돌 ─ 아 든 ── 다 에 헹 에 헹
에 헤 야 ── 에 헤 에 루 화 좋 ─ 구 좋 다 ─
어 러 ─ 럼 ─ 마 지 여 라 ── 절 승 경 개 ─
로 ── 다 3.폭 포 락 수 가 ─ 쾅 ─ 쾅 ─
절 벽 이 깨 지 면 깨 ── 졌 지 ─ 우 리 ─ 네 ──
Gm
Dm
mf
F
ff
E♭
B♭

2. 만월대의 옛 터전에 밝은 달이 둥실 솟아
박연의 명승지가 에루화 더욱 좋다
(후렴)

3. 폭포락수가 쾅쾅 절벽이 깨지면 깨졌지
우리네 마음이야 다시 변할소냐
(후렴)

비단짜는 처녀

작사 최원근
작곡 정세룡
좀 빠르고 흥겹게
1.륙 승 정련못—가 에 —— 늘—어진—버—들 을 ——
실—실 이 날 —실 로 ——— 늘 여—나 볼 —가
약 산 이라진 달 — 래 곱—게 핀—꽃 ——을
송 이—송 — 이—비—단—필에 —— 수 놓—아보 —세 아 —
아
오 —색 무늬 —고—운—비 단 —— 수놓—아보 —세 나

2. 구룡강 굽이굽이 맑은 물결아
네 흐름 길다고 자랑을 말아
구름가에 솟아있는 약산의 동대야
제일봉이 높다고서 뽐내지 말아
아 약산단을 늘이며는 남해에 닿으리

3. 약산의 진달래는 비단필에 꽃피고
충성의 마음도 송이송이 꽃피네
삼천리라 금수강산 비단으로 수놓으며
수령님을 모시고서 천만년 살아가세
아 수령님을 모시고서 천만년 살아가세

서도아리랑

(전렴)
2. 팔랑팔랑 수갑사댕기는
어깨너머서 춤을 추네

(전렴)
3. 청사초롱에 불 밝혀라
그립던 랑군이 돌아오리

신고산타령

밝고 건드러지게(반굿거리장단)
Am
1.신 고 산 이 ——— 우 르 릉—
Dm
Am
그 무 슨 소 린 가 하 였 더 니——— 농 장 마 을 —
Am
Dm
처 녀 들 이 뜨 락 뚤 모 는 — 소 리 일 세 ———
Am
어 랑 어 랑 어 — 허 — 야 어 —— 럼 마 지 여 라
F
D
Dm
Am
뜨 락 뚤 모 는 — 소 리 일 세 ———
4.신고산이——— 들썩하게 농—악소리— 울리더니——

2. 온다야 온다길래 동구밖 큰길에 나갔더니
자동차에 가득가득 홍남비료가 오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렴마지여라
홍남비료가 오누나

3. 농장벌 풍년벌에 관개수가 흐르더니
강냉이 한이삭 덥석 잡아도 큰애기 팔뚝만 하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렴마지여라
우리네 신고산 노래하세

4. 신고산이 들썩하게 농악소리 울리더니
집집마다 풍년분배 쌀독이 가득 넘쳤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렴마지여라
쌀독이 가득 넘쳤네

조선팔경가

2. 에 총석정 해돋이는 못 보면 한이 되고
동해의 푸른 물은 볼수록 유정하다
(후렴)

3. 에 여름의 부전고원 록음이 우거지고
평양은 금수강산 행복의 락원이라
(후렴)

※ 1. 백두산 높아높아 창공에 솟았구나
(한나산 높아높아 속세를 떠났구나)
2. 에 총석정 해돋이는(에 석굴암 아침경은)
동해의 푸른 물은(해운대 저녁달은)

처녀총각

작사 유도순
작곡 김준영

2. 괭이 들고 밭가는 저 총각의 가슴에도
봄은 찾아왔다고 피는 끓어 울렁울렁
코노래도 구성지다 멋들어지게도 들려오네
응응응응

3. 봄아가씨 긴 한숨 꽃바구니 내던지고
버들가지 꺾어서 양지쪽에 반만 누워
장도동선 삭둑삭둑 피리 만들어 부는구나
응응응응

평북녕변가

작사 주도인
작곡 전기현

2. 평북녕변 찾어가자 약산동대 찾어가자
천주사를 찾어드니 절승강산이 예 아니냐
(후렴)

풍년고사리

행복에 넘쳐(도도리장단)
mf A♭
1.고 사 리 고 사 리 —— 고 사 리 ——
귀 —— 여 —— 운 고 —— 사 리 야 —
꽃을 보 자고 내가—왔 —나 너를 보 자고 내가—왔 —지
올 해 도 —— 잘 — 자란 봄 —— 고사 —— 리 —
(후렴)
에 — 헤 —— 에 —— 헤 — 야 —
꽃 피는— 우—리산 천— 황 — 금 산 ——골—짝마다—
고사 리 풍 년이 — 들 었 —구 — 나 —

2.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 탐스러운 고사리야
산에 산마다 산고사리 앞산뒤산에 살진 고사리
이 강산 좋아서 춤을 추네
(후렴)

3. 고사리 꺾어서 보내여주세 집집마다 보내주세
정성 담아서 한바구니 노래 담아서 또 한바구니
우리의 마음을 보내주세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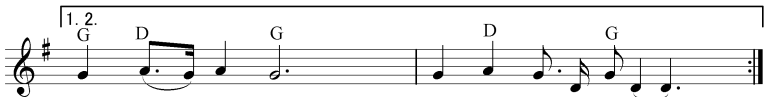
풍년새가 날아든다

작사 한찬보
작곡 리동준
흥겹게(굿거리장단)
1.새 가새가 날ㅡ아든다 새 가새가ㅡ날 ㅡ아 든다
실 실늘어진양ㅡ버들엔ㅡ 황 금새련가 꾀꼴새야
구성진네노래멋들었다 (하) 구성진네노래멋 들었다
금수 ——강 ㅡ산이라 살기가좋아서노ㅡ래하냐ㅡ
둥 기둥기ㅡ둥 둥ㅡ 둥 기둥기ㅡ둥 둥ㅡ
이나무저나 무찾아서 (어) 쌍쌍이날아든 다 ㅡ

2. 새가새가 날아든다 새가새가 날아든다
꽃핀 봄날 좋은 때라 노래부르는 저 뻐꾹새
올해도 풍년을 부르누나 올해도 풍년을 부르누나
사래긴 밭에 씨앗을 듬뿍이 뿌려간다
둥기둥기 둥둥 둥기둥기 둥둥
여기서 저기서 뻑뻐꾹 쌍쌍이 날아든다

3. 새가새가 날아든다 새가새가 날아든다
훨훨 줄지어 울고가는 둥실 중천의 저 기럭아
갈길은 멀어도 쉬여가렴 갈길은 멀어도 쉬여가렴
천리옥토벌에 관개수 맑은 물 흘러든다
둥기둥기 둥둥 둥기둥기 둥둥
언제나 행복한 이 땅에 쉬였다 가려무나

풍년을 노래하네

멋들어지게(굿거리장단)
G
에 라 ㅡ만 수 풍 년 이 로구나 ㅡ
*
G C G
1.두 리둥 둥 북소리는 풍 년불러 서홍이 ㅡ로 다
G D G
정 자ㅡ나무 그 늘아래 쌍 봉학ㅡ이날아들고
Em C G Am G D
상쇠 ㅡ잡이ㅡ꽹매 기쩡ㅡ 쩡ㅡ 열 두발ㅡ상모가춤ㅡ을추누ㅡ나ㅡ
1. 2.
G D G D G
에 라 ㅡ만 수 풍 년 이 로구나ㅡ
3.
G D G D G
에 라ㅡ만 수 풍 년 이 로구나 ———
*G
3.열 두 나 —— 삼 천리벌

2. 여보소 동무네들 이내 말을 들어보소
이 강산 금수산천 경개 좋아 좋다던가
팔월가위 둥근달아래 북소리 둥둥
춤 추어보세나
에라 만수 풍년이로구나

3. 열두나 삼천리벌 물줄기 굽이 돌아
메말랐던 저 벌판이 옥토벌로 되였으니
금파만경이 넘실넘실 풍년가을이
좋기도 하구나
에라 만수 풍년이로구나

흥 타 령

2. 우리 님 동창에 흥 저 달이 비치면 흥
고향집생각에 잠 못들리라 흥
(후렴)

3. 저 달아 보느냐 흥 우리 님 계신 곳 흥
네 눈을 빌려다 내 잠간 보잔다 흥
(후렴)

(원전)

해 당 화

2.해당화 붉은 꽃이라 곱네 해당화 붉은 꽃이라 곱네
아침에 볼제 웃는 얼굴 저녁에 보아도 변함이 없네
아 좋구나 해당화야 너만 곱다 뽐내지 말아
만선기 달고 오는 님은 정든 포구 감돌아들면서
굴 캐는 날 먼저 반기여준다

3.해당화 붉은 꽃이라 곱네 해당화 붉은 꽃이라 곱네
해마다 맺는 붉은 열매 열매도 많아서 자랑일세
아 좋구나 해당화야 너만 곱다 뽐내지 말아
포구에 꽃핀 내 사랑도 고운 열매 너와 같이 맺어서
우리의 행복을 자랑하리라

까투리타령

흥취나게
mf
Em G Em D
까 투 리 한마리 푸 르릉－하니 매 방울이 －떨 렁
D G Em Bm Em
－ 우 여 우 여 우여 까투리사냥을나간－다
Em G C
1.평 안 도라묘향 산으로 꿩 사냥을나간 다
C G C
향로봉강선봉룡 연담 을넘어 칠성봉꼭대기당도하자
(후렴)
Em Am
까투리한마리푸르릉푸르릉 매 방 울이떨 그렁
G Bm G D
하늘 로감 돌 아 어 떤절간의저종 소리
G C Em G
그 저 뗑그렁 － 뗑 운 다 까투리한마리푸 르릉－하니

2. 강원도라 금강산으로 꿩사냥을 나간다
망군대 장군봉 구룡담을 넘어
비로봉 꼭대기 당도하자
(후렴)

뻐 꾹 새

밝고 흥겨웁게
mp Em
Am
Bm
Em
1.봄 바 람 이 가벼웁게불 고 요 진 달
래 는 곱—게도피는 데 이산 에 서 도
mf
뻐 꾹 뻐 꾹 저산 에 서 도 뻐 꾹
C
뻐 꾹 뻐 꾹새 가 날 아든다 이산 에 서 도 뻐 꾹뻐꾹—
G
저산에서도— 뻐 꾹뻐 꾹 이 강 산 에 풍—년이온 다
f C
네 이 강 산 에 풍—년이온 다— 네
D7

2. 봄바람이 버들잎을 날리며
복숭아꽃 방긋이 웃는 봄
이 산에서도 뻐꾹뻐꾹 저 산에서도 뻐꾹뻐꾹
금수강산 좋을시고 봄노래하며 뻐꾹뻐꾹
짝을 지어서 뻐꾹뻐꾹 이 강산에 풍년이 온다네
이 강산에 풍년이 온다네

3.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고요
아지랑이 동산에 피는데
봄이 왔노라 뻐꾹뻐꾹 진달래 폈네 뻐꾹뻐꾹
아름다운 목소리는
언덕에서도 뻐꾹뻐꾹 산골에서도 뻐꾹뻐꾹
이 강산에 풍년이 온다네 이 강산에 풍년이 온다네

※ 1. 진달래는 곱게도 피는데(붉은 꽃이 아릿다이 피는데)
2. 복숭아꽃 방긋이 웃는 봄(리화도화 방긋이 웃는 봄)
3. 아름다운 목소리는(아릿다운 목소리는)

뽕 타 령

흥겹게(반굿거리장단)
mf G
1. 에 헤 에 헤야 얼 ㅡ 싸 네 로구나
G C A7 D
얍 전한 처 녀 가 에루화나는 좋 ㅡ 더라
G Em D G
뽕밭 ㅡ 에 들── 어가 뽕 따는 처녀야 곁 눈질
1. 2. 3. 4.
D A7 D D
말 고 서 에루화뽕이나 따ㅡ거라 싫 ── 소
G
에 헤 에 헤야 얼 ㅡ 싸 네 로구나
G Am A7 D
의젓한총각이 얍전한처녀가 에루화나는 좋ㅡ더라

2. 에헤 에헤야 얼싸 네로구나
의젓한 총각이 에루화 나는 좋더라
사래긴 밭에서 김매는 총각아
실없는 소리에 에루화 일 늦어진다

3. 에헤 에헤야 얼싸 네로구나
얌전한 처녀가 에루화 나는 좋더라
서산마루에 해가 질란다
남은 뽕잎을 에루화 나도 따줄가

4. 에헤 에헤야 얼싸 네로구나
의젓한 총각이 에루화 나는 좋더라
뽕도 좋구요 마음도 좋으나
소문이 날가봐 에루화 나는 싫소

에헤 에헤야 얼싸 네로구나
얌전한 처녀가 의젓한 총각이
에루화 나는 좋더라

뽕따러 가세

작사 박원철
작곡 유정철

2. 아침에 포탄 이고 고지에로 달리여가고
명주 짜며 새는 밤도 그대 돕는 마음일세
(후렴)

3. 따발총 추켜메고 싸움터로 떠난 님아
미국놈을 쳐부시고 영웅되여 돌아와주오
(후렴)

아 리 랑

2.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청청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꿈도 많다

3.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저기 저 산이 백두산이라지
동지섣달에도 꽃만 핀다

양 산 도

흥겹게(양산도장단으로)
에루화 좋 구—나 —— 아니 못—가 —— 겠 ————
네 ———— 이 강 —산 — 두 ———고—서 나는못가—
겠 ———————— 네 — 1.에 헤 —이— 에 ——
3.에 헤 —이— 에 ——
———— 양 덕 맹 산 ——— 흐— 르 —는 —
———— 물 어 보 자 ——— 네—어 —디 —
물 ———— 은 ——— 청— 류 —벽— 으————로
사 ———— 니 ——— 이— 강 —변— 좋 ———아—서
감 돌 아— 든 ———————— 다 — 에 루 화
나 여 기— 산 ———————— 다 — 에 루 화
좋 구 —나 —— 금 수—라— 강 ———— 산 ———
봄 철 —아 —— 가 지—를— 말 ———— 아 ———

실 버 —들— 실 ———실—이 봄 빛이— 로 ———
아 까 —운— 청 ———춘—이 다 지나— 간 ———
다 — (끝) 2.에 헤—이— 에 ———
다 —
쳐다 ——— 보 니 —— 모—란—봉— 이 ———
요 ——— 흘—러 —서 감———도—니 릉 라도—
로 ——— 다 — 능수나 버 들—엔 ——
꾀 꼬—리— 울 ——— 고 ——— 꽃 속 —의—
나 ———비—는 쌍 쌍이— 춤—이 —로— 다 —
D.S.

영천아리랑

2. 머루야 다래야 더 많이 열려라 (하)
산골집 큰애기 신바람난다
(후렴)

3. 앵두나 오디는 단맛에 먹구요 (하)
딸기나 살구는 신맛에 먹는다
(후렴)

4. 저 건너 앞산에 봉화가 떴구나 (하)
우리 님을 허절씨구 만나를 보잔다
(후렴)

5. 울 넘어 담 넘어 님 숨겨두고 (허)
호박잎만 난들난들 날 속였소
(후렴)

옹헤야

2. 옹헤야 헤헤헤 옹헤야
이 풍년이 절로 왔나 말해보세 옹헤야
기계농사 옹헤야 과학농사 옹헤야
주체농법 꽃피웠네 풍년맞이 옹헤야
헤헤헤 옹헤야

3. 옹헤야 헤헤헤 옹헤야
수령님의 농촌테제 꽃펴난다 옹헤야
우리 농촌 도시를 닮아간다 옹헤야
공산주의 한가정이 붉게 핀다 옹헤야
헤헤헤 옹헤야

노래집
울려가라 병사의 노래여(3)

편 집 박충성
콤퓨터 편 성 최명희
교 정 박미애, 김경희
표 지 류명구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1(2012)년 5월 20일
발 행 주체101(2012)년 5월 25일

ㄱ－26086 값 200원

ISBN 978－9946－22－479－4